—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1 1981년9월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September 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5 1981

하키 최강6국 「캐나다컵」 개막

캐나다 쾌승 핀랜드에 9:0

'81년도 「캐나다컵」 쟁탈 세계하키선수권대회가 에드몬턴과 위니펙에서 일제히 개막, 캐나다는 첫날 핀랜드를 9:0, 미국은 스웨덴을 3:1, 소련과 체코는 1:1로, 각각 서전을 장식했다. 4번의 연습게임에서 두각을 못나타낸 NHL우승팀 아일랜더스의 마이크·보시, 브라이언·트로티어, 크락·길리의 3총사 포드라인은 핀랜드의 수비진을 헤집고 9골중 4골을 올리는 수훈을 세웠다. 이 포드라인만이 보우맨 감독이 확정한 진용이었다. 이밖에 NHL 최고선수 웨인·그레츠키가 2골, 레이·보그, 대니·게어, 브츠·괴링이 각각 1골을 올렸다. 72년 소련과의 경기부터 뛰었던 유일한 선수인 30살의 버팔로의 질·페렛트는 게이·라플러, 웨인·크레츠키와 또 하나의 공격진용을 만들어 4골을 어시스트, 에드몬턴·콜리시엄에 모인 9천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국3 : 스웨덴1
소련1 : 체코1

이날 캐나다와 핀랜드의 경기에서 캐나다는 1피어리드에서 1점밖에 못올리는 부진을 보였다

제2피어리드에 들어와서 그레츠키가 그의 특기 네트뒤로부터의 돌진 수을 성공시키자 핀랜드는 우르르 무너져 연달아 5점을 내주었다

3피어리드에서도 캐나다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3점을 추가했다 캐나다는 다른 팀과의 동률 순위때 득점골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공격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다

핀랜드팀에는 에드몬턴·오일러의 선수가 3명이나 포함되어 관중들의 응원을 받았으나 역부족이었다

게임후 핀랜드 감독은 "이기리라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스코어로 질 줄을 몰랐다"면서 "캐나다는 그들의 전통인 육박전을 벌이지 않고 유럽선수들의 특기인 세기(잔재주)를 가지고 핀랜드를 눌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기에 앞서 열린 게임에서는 약체라고 믿어졌던 미국팀이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된 팀웍을보여 강호 스웨덴을 3:1 로 물리쳤다

캐나다대뮤팀 출신의 시카고의 투니·에스포지토(7월 미국시민권 획득) 가 골문을 지키쁜 NHL B 급 선수로 구성된 미국팀은칼가리의 켄·넬수 토론토·매프릭스의 보야·샤밍등 NHL 1군선수가 10명이나 끼인 스웨덴을 물리쳐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목됐다

80년 올림픽에서는 미국의 대학선수들이 세계최고 수준의 소련하키팀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미국은 3일 경기를 갖게될 캐나다에게는 또하나의 강적이다

한편 위니펙에서 열린 소련대 체코의 경기는 1:1로 비겼다 스탠지 형제등(퀘벡·노르딕)4명의 대표선수가 캐나다로 망명 팀워 자체가 흔들린 체코는 세계최강 소련을 맞아 선전했다

"소련은 보통 자기존에서부터 패스웍으로 공격을 일으키므로 우리는 맨투맨으로 미리 공격의 맥을 끊었다"고 부덱·부칵 체코팀 감독은 말했다

캐나다는 3일(목) 저녁8시(토론토시간) 에드몬턴에서 제2차전을 미국팀과 벌인다 이 게임도 CTV (CH 9. 13)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몬트리얼서의 결승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는 막을 내린다

이 「캐나다컵」 세계하기 대회는 매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프로·아마 구별 없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대회이다

지난 76년도 제1회 대회에서는 캐나다가 체코를 연장전끝에 5:4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던 이 대회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사태로 연기됐었다

◇2골의 수훈을 세운 웨인·그레츠키, 핀랜드 골리 가랭이 밑으로 팍을 밀어 넣고 있다.

뱅쿠버에 연쇄살인마

소년소녀8명 살해용의, 기소

뱅쿠버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엽색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큐리포드·로버트·올슨(41)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올슨은 뉴·웨스트 민스터에 사는 쥬디·코즈마15)양을 죽인 1급 살인 용의자로 2주전 기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작년 11월 실종되어 크리스마스날 리치몬드 근교의 채방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채로 발견된 크리스틴·웰러(12) 를 선두로 지난 8월1일 실종된 캐리·린·카슨(15) 등 10대 소년소녀 8명의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추가 기소되었다

피살자의 나이는 10살부터 21살의 소년 소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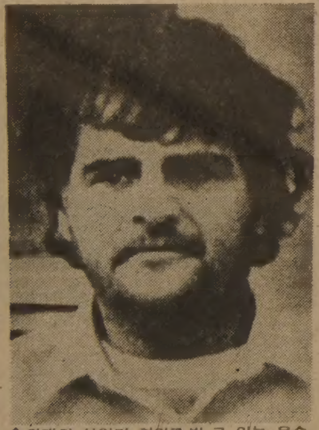
올슨은 10개월된 아들을 가진 자영건축노동자로 코퀴트람(B.C.)에서 살고 있다

이번 뱅쿠버사건은 영국의 요크리퍼 연쇄살인사건, 죠지아주 아틀란타의 흑인소년 연쇄살인사건등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서 특정한 원한관계등이 없이 무작위로 피해자를 추출하여 살해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소위 현대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신질환은 현대사회의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희생된 15세 코즈마양



◇희대의 살인마 혐의를 받 고 있는 올슨.

교육보조금 삭감 비난
연방의회,인력배출등 강조

연방의회 재무위원회는 온타리오주의 고등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된 것은 주정부보다 연방정부 보조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원회는 오타와 정부가 각 대학교와 컴뮤니티·칼레지에 지금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온타리오를 비롯한 여러주의 교육보조비 감소조처를 신랄히 비난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목표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의가 불가피하다고말했다.

214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80년대를 위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인력배출이 고등교육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모든 케네디언이 고등교육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평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걀 덤핑수출
국내가격은 인상

캐나다 달걀 공급회사들은 공급초과로 약300 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

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달걀 1억개를 절반값에 중동등지에 반출 수출하기로 했다

CMCA(계란공급협회)는 1다즈당 61~78¢로 덤핑 수출하지만 캐나다소비자나 양계업자들에게는 다즌당 1달러 이하의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CMCA는 6.800만 다즌을 덤핑 수출하면서도 캐나다 소비가격은 오히려 10¢를 올렸다

생산과잉은 계속된 양계의 증가에 기인한다 수요는 한정되어다

CMCA회장 해롤드·크로스만씨는 "82년말까지 업자들은 계속적자일 것이다 그때가서야 생산감축으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계업자들의 생산원가는 계속증가 계란 소비가격은 절대 낮출수 없다고, 크로스만회장은 말했다

현재 토론토시내 일반스토아에서는 큰계란 1다즌당 130¢~149¢에 매매된다

프레이저 역설 미군주둔 필요성

(미네아폴리스=연합)한국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전 미하원의원 도날드 프레이저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1일 미국을 방문중인 민정당 사무총장 권정달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해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한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과거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야기된 인권문제및 다른 정치적문제들은 1년전에 출범한 새 정부와 함께 사라졌다고 그에게 말했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휴간 안내▷

본사는 오는 7일(월) 노동절에 휴무합니다. 7일자 〈한국일보〉는 8일자와 합본 발행합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MUTUAL LIFE>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실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리니다

박 시 조 올림

취급보험 :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룹보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 : 494-3800(B)
481-8835(R)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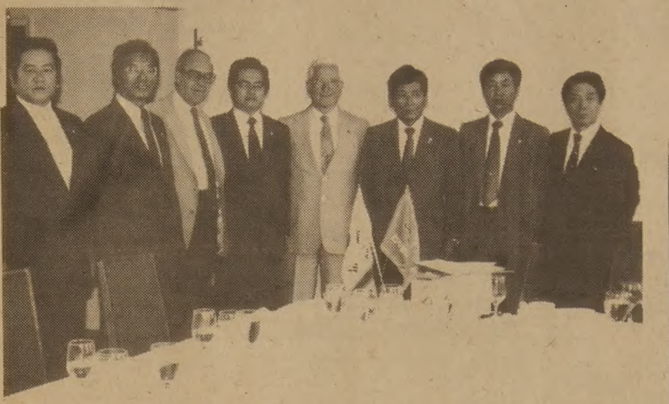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무역·문화교류 증진등 협의

봉두완의원 일행 캐나다방문 마쳐
상·하의원 75명과 많은 장관만나

(오타와 이태은·몬트리얼 정관성 지국장) 한가의원친선협회 캐나다측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봉두완 의원등 한국의원단 일행 5명은 5일간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얼에서 상·하의원 총 75명과 많은 연방및 주정부 장관들을 만나 양국간의 교역, 문화교류 증진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장 봉의원과 김승목(민한당), 정희채(민정당), 민병초(민한당)및 오타와에서 합세한 홍성우(민정당) 의원은 캐나다측 의원협회장 로버트·코츠(Coates) 의원과 「양국의 경제협력및 무역증진을 위해 두 나라 의회가 협조하며, 양국 의회는 체육, 예술, 교육, 매스·미디아 분야의 상호교류를 추진한다는 것」등에 합의했다.



◇로이드·프랜시스연방 하원부의장은 28일 캐나다를 방문중인 한가의원친선협회 한국측의원들을 의사당으로 초대, 오찬을 베풀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홍성우의원, 봉두완단장, 로버트·코츠한가의원협회 캐나다측 회장, 정희채의원, 프랜시스부의장, 김승목의원, 민병초의원, 이규현 주 오타와대사.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원단의 방문기간중 내내 이들을 동반한 코츠 의원은 이들이 장관등을 만나는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토일에 대한 전대투령의 정책지지 핵에너지 개발과 캐나다의 오일및 개스자원 개발에 한국의 중공업계가 참여할 것등을 강조했다

코츠 의원은 또한 캐나다에 있는 5만명 한국교호의 공헌을 지적하고 한국인들의 이민증가를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인들로는 메꾸기가 부족한 분야에 기술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면 좋겠다는 뜻을 표했다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겸 당대변인인 봉의원은 캐나다측 의원들에게 전대투령의 남북대화 제의등을 상기시키고 남북한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봉의원 일행은 토론토에서 프랭크·드리 온타리오주수상 대리(지역사회봉사장관)를 예방하고 캐나다원자력위원회 리차드·웃부사장을 만났으며 피커링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했다

이들은 오타와에서 헙·그레이 상공장관 유진·휄란 농림장관 제임스·프레밍 복합문화성장관 등을 만나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들은 또한 월터·베이커 야당원내 총무와 잔·막상 상원의장을 예방했다

지닌 2월 전대투령 취임식에 캐나다대표로 참석했던 막상 의장은 남북 대화재개에 관한 전대투령의주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근년들어 양국정부및 정계인사들의 교환방문이 규작히 증가 한국측서는 서석준 상공장관 실업인 그룹 이태섭 의원이 인솔하는 국회상공분과위원회 의원단등이 캐나다를 다녀갔다

캐나다측서는 로버트·코츠의원을 단장으로한 한·가의원친선협회원 에드·럽니 무역장관등이 서울을 방문했고 오는 9월에는 트루도수상이 캐나다 수상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다

◇2백50만불짜리 육체—뉴욕의 체이스 맨하탄뱅크의 지점장급이었던 이 여인(31세)은 자기의 상사로부터 성행위를 강요 당했다고 주장, 은행을 걸어 2백5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黑人商街의 한인商人들 (하)

지역共同體참여 상호 理解幅 넓혀야

이같은 흑인상인들의 불만과는 달리 할렘지역사회 담당관인 윌리·클라워스씨와 같이 미국은 자유의 국가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흑인들도 있다.

클라위즈씨는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인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여러가지 잡음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이런 잡음은 새로 이민온 사람들이 미국사회를 잘 이해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사회를 빨리 배워적응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인종의 대립으로 생각해서는 위험하며 미국역사, 특히 흑인역사를 볼때 인종적 차별및 대립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일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흑인 지역에 들어와 생기는 문제도 흑인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흑인은 미국사회의 소수민족에 속하나 흑인사회에 침투한 한인들은 흑인사회의 소수민족으로 생각하는 일부 흑인들 때문에도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고 클라워스씨는 말한다.

클라워스씨는 흑인들은 현재 민권운동등으로 사회적 지위가 그 어느때보다도 향상되어 있어 흑인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쳐다보지도 않던 유태인, 이태리인등 백인들에게 착취당하던 때와는 달라 어느 인종이 흑인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할때는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반감을 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마이카의 한인 야채가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한국인이 흑인을 이해 못하고 고객을 잘못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잘잘못 이전에 사업에 방해를 가하면서 데모를 하는것은 흑인들의 잘못으로 생각한다고 클라워스씨는 피력한다.

흑인들입장에서 한인가게 주인이 싫으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감정적 인종적 대립으로는 자유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클라워스씨는 흑인들 행동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클라워스씨는 이런 인종간의 문제는 한국인 상인및 한인 지도자들과 흑인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 상호 이해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상호접촉은 1회로 끝나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한 클라워스씨는 이를 위해 한인사회가 원하면 언제라도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 용의가 있단다.

할렘 소재 주청사 관리인 허클러스씨는 자신은 한국에 군인으로 갔다와 한국인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은 한국서 본 한국인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한다.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라에 이민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한인들은 지역사회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허클러스씨는 말한다.

한인들이 최근 곳곳에서 흑인들 지역사회에서 충돌이 생기는 일도 가족 중심제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허클러스씨는 장래를 생각할때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을 좀 해야되며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허클러스씨는 『사회참여란 번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리는 일도 중요하는 한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도록 저마다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지만 말고 중요한 행사에 나타나 한국인을 소개하고 또한 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피력한다.

허클러스씨는 한국인들이 흑인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은 환영하나 경제, 사회, 정치적 차이를 빨리 터득하길 바라며 장래에 지역사회 발전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전으로만 도움을 주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대화의 광장, 공동체 의식을 심는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뉴욕지사=최복림·박외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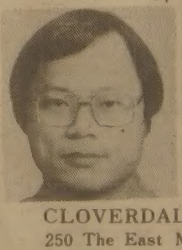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3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주간女性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월~토 9:30AM~6: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11AM 7PM

운전교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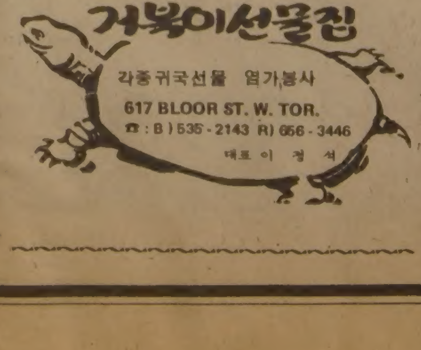
423-3035
(오 행 근)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신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최면술, 종교적체험의 중요요소

신의 은총으로 병고침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예수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과 논란의 초점이 되어왔다. 요즘도 TV를 통하여 목사들이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볼수있다.

최근 이런현상에 대하여 '이토비콕병원 정신과 쵸지·메더슨(33)과장은 "병을 고치는 주요원인은 최면효과에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신도 최면술을 사용,많은 환자를 고치고 있다고 말하는 메더슨은이런 병고침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믿는다. 다만크리스천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병고침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믿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면술과 자기최면의 사용법을 이해 하는것은 종교적 진리를 터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한편<토론토스타 >의하퍼 종교담당 편집부장은많은 목사들이 고쳤다고하는 환자중엔 겨우 그 효과가 몇시간,혹은 며칠밖에 못가는 일종의 히스테리아현상의 부산물이 많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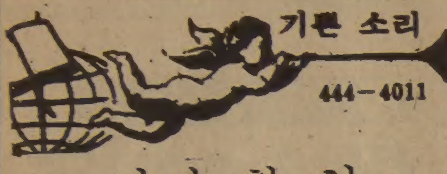
세계적 부흥사 빌리·그래함의 전도를 통해 "거듭난"(Born again) 사람들이나 개종한 사람들도 이러한 최면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집회에서는 열광적인 찬송을 거듭 함으로써 감정의 최고경지에 도달한다. 감정의 고조는 설교자의 말을 무조건 수용할수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이러한 상태에서 설교자의 설교는 최면술과 똑같은 작용을하는 것이다.

높은 연단에서 스폿·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면서설교자가 호소력이있는 목소리로 설교할 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점점 무비판적으로 되어가 마침내 최면현상에 도달된다.

메더슨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병고침의 자연적 요소(최면효과)때문에 결코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대한 경이와 위대함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태아의 생산과정을잘 알았다고 하여 생명의 신비가 감소되지 않는것 처럼 병고침에 최면적 치유의 차원을 소개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의 복잡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메더슨은 강조했다.

<토론토·스타지에서>



가야 할 길

—안 상 엽—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이고, 또한 죽는것은 전쟁 에서 되는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지금세상은 전쟁으로가득하다. 왕과 대통령, 교황과 전당들, 그리고 정적을법과 종교관에 묻어 다량으로 확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런 청소년을 몇사람씩 죽여 넘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날마다 신문의 첫 페이지를 차지한다.

한 마디로 병든죽음의 세상이요, 그 길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것이 인생이라 하겠다.

현대인에게 공통적으로 전염되고있는 병은 모쉽이만 한다면.

첫째, 물질과 과학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자만심이요,

둘째, 말과 행동이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내 자유"라는 것.

세째,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모든일에 그 목적이 분명치 못한 질병인 것이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전에 이미 끝내 버린다 는 말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다면"자유"(Freedom)이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귀중한것이 되려면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이 두가지로 언행을 이루어 갈때 아름다운 "권리"가 소유되지만, 만일 책임이없는 자유만을 내세우고 행동화 할 때 곧"방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인 칸트(E. Kant)는 "자유 는 바로 정의(正義)"라고 말한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만일 법을 어기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불의한때는 규약과 법에의해 감옥으로 보내당한다. 감옥이란바로 자유가 박탈된 곳이요, 또한 고침을 찾게하는 잠정적인 처소라 하겠다.

객관적으로 어디에 가장 자유가 많으냐 한다면 골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자동차를 몰며 달릴수 있는 길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나 자유롭게 갈수있는것이 길이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거나, 혹은 순간적으로나마 규칙을 벗어나 어기고 실수하면 큰 사고를 일으켜 자신은물론 남에게 까지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만 해도 일년간에 약 5만명의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죽고, 또한 수십만의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법이요, 윤리이다. 내가운전을 잘한다고 내 멋대로 달려서는 안되며, 언제나 다른사람의 차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안전한 운행의 귀한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의 기능은 달려가는것(Go)만이 아니라, 그에못지않게 서는것(Stop)인 두가지 이다. "자유"가 "달려가는것"이라면 "책임"은" 서는것"이라고 비교할수 있을것이다.

눈을뜨고 일어나기만 하면 눈에보이는 길에서 오고, 가는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않는 훨씬 넓고 큰 길도 있다. 윤리와 도덕과 믿음과 생명의 길들이라 본다. 눈에 보이는 길은 짧으나, 보이지 않는길은 영원하고, 보다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길의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영원한길을 잊어버리고 매일 생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것은 바로 그길로 가는 것이다. 인간 자신이 도를 닦는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고, 보이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달려감으로 영육간에 구원의 목적에 달하고 참 자유를 얻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인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곧 축복인 것이다

(토론토한인 선교교회 담임)

◇바다의 요정=내리 찌던 더위도 한풀 가고, 9월의 산들바람이 젊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한다(사진·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레이크·키스턴에서).

뉴욕 脫出

흉악범 矯導所로 변한 1997年의 뉴욕

새 映画

때는 1997년. 범죄율 4백% 증가. 정부는 격리요법을 사용, 맨하탄을 교도소로 둔갑시켜 각종흉악범을수용한다. 들어가면 나올수 없는이 뉴욕의 「정글」에 정상회담 참석길의 대통령 도널드·플레전스가 탄 1호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추락, 혼자 살아남은 대통령은정글속「원시인」의 포로가 된다.

대통령을 구할자 누구? 온갱강도로 맨하탄에 수용될 역전의 영웅 플리시킨(커트·러셀)이 자유와의 교환으로 단독으로 뛰어든다. 그를 믿지못하는 경찰커미셔너 리·밴·클립은 러셀의 목에 약물을 투여, 24시간내 대통령을 구출못하면 체내에서 녹아 사망케되고, 게다가 대통령은 핵폭발공식이 수록된 테이프를 소지, 얘기는 플리시킨의 초조한 초침과 함께 드릴있게 진행된다.

감독·각본·음악까지 도맡은 존·카펜터의 재주가 번득이는「ESCAPE FROM NEW YORK(뉴욕탈출)」은 인간의 가까운 미래가 이렇게 암담해질수 있을까하는 허무감을 느끼게 하지만 폐허가된 맨하탄은 차라리 지금의 사우스 브롱스를 그대로 옮겨놓은듯미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사실감마저 감돈다.

약육강식의 원칙만 통용되는 냉혹한 현실에 뛰어든 러셀의 냉소적인 연기가 거칠지만 탄탄하고 버려진 극장에서 벌어지는 범법자들의 뮤지컬등 카펜터는 사실묘사의 숫법으로 철저하게 차갑게 웃으며 연출한다.

교도소 본부가 된 자유의 여신상과 달빛아래 비친 거대한 무덤 맨하탄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소름이 끼친다.

잔인과 폭력이 범람하나 긴장감이 팽팽한 영화. 인터내셔널·필름·인베스터스작. 애브코·엠버시배급. 등급 R(16세이 하는 필히 보호자 동반). <津>

▲무뚝뚝한 커트·러셀은 일당백으로 맨하탄의 밤을 누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⑤③

팔리·모왓 원작, 천 새 훈 옮김

정부에의해서 이할미우트에게 보내진 늦은 원조는 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철회가 된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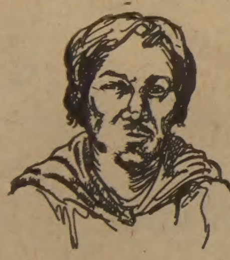
다음 한달동안 앤디와나는 윈디베이에 거의 머물면서 사슴때가 돌아오는것을 기다렸다. 우리들이 외롭지 않게 오텍이 떠나간지 4일만에 이할미우트 의 모든 장정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즐거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이누이트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은혜를 베푸는 신같이 여기고 우리를 대우하는것을 오텍과 함께온 사람들은 우리가 도착한것을 그렇게 좋아할수가 없었다. 나무나 물이 필요할때는그들은 벌떡 일어나 우리를 도와 주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산을넘어가 잡기힘든 살찐 사슴도 잡고, 또 사슴 혓바닥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밤이되자 모두 집으로밀려와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자야 된다고 점잖게 몰려 보낼때 까지 머물러있었다.

헤카우와 오울럭톡은 흰여우가죽을 갖고와서 우리가준 선물을 감사하게 받았다는 우정의 표시로 주었다. 불행하게도 이모든 인정에는 교환조건 이었다.

앤디와 나는 무역하는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필요한 양의 물품만 가지고 왔었다. 우리가 이할미우트의 긴급한 사정을 도와주고 나니까 가장 귀중한 실탄을 포함한 모든 물품이 동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색해지지 않을수없었지만 이할미우트 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것 같았다. 그들을 가지고있는모든것을 줄려고 했다. 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백인은 무한정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지로는 호기심 이외에는 더 귀중한 것을 갖지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것을 설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그전해에서 있던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더욱 답답하고 힘들어졌고 손짓만 해가지고는우리자신을 도저히 설명할수가 없었다. 나는 프란쯔가 항상 적당하게 통역을 해주고 이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통하는데 한번도 자진해서 해주지는 않했었지만 그가 무척 아쉬워졌다.



프란쯔가 없기 때문에나는 큰 미궁에 빠지게 되었고, 현상태로 보아서는 이할미우트의 마음과 기억을 도저히 납색해내지 못할것이 자명한 일이었다. 만일 이할미우트의 말을 배우지 않는한 내가 처음에 왔을때처럼 이사람들을 전혀모른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스키모 말을 배운다는것은 수년동안 노력을 해야된다는 초기 탐험가들의 말을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큰 과제를 시작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앤디와 나는 한달동안 귀먹은 사람들처럼어색하게 지냈지만 그들의눈짓으로는 우리가 듣고싶은 것을 들려줄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오텍과 나사이에 일어났던 곤경을겪고 지친나머지 나는 황소의 뿔을 잡은듯이 결심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겠노라고 단언을 했다.

나는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기대할수가 없었다. 관심이 없는지 혹은 주저할런지, 더우기는 어린애같은 요구를 받은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할지…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다.

백인이면서 낯선사람인 내가 내언어를 그들이 배우도록 하지않고 대신내가 그들의 말을 배우겠다고자청했고, 우리들 사이에 놓여있는 피부의 장벽을 이쪽에서 먼저 넘어보겠다고 한 꾸밈없는 사실에 그들은 감동하고 받았다. 그들의 생활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것을보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흥분해서 거의 야단법석을 떨었다. 오텍과 오호토가 이일을 맡도록 불려왔을때 그들은 갑자기 백인들한테보였던 통례의 존경을갖고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광적인 정열을갖고 대하는이 문제를놓고 온정성을기울였다. 우선 오텍은 이할미우트라는 단어의 뜻을 가르쳐 주었다. 모래위에 여러가지 그림을 그려가며 이말의 뜻을 거의 알만하게 되자 오텍은 오호토를 한군데에 세워놓더니 나를 몇피트 떨어져 남쪽으로서 있게 했다. 그런다음 그는 오호토를 가리키며 그가말을 할때 목소리에 굉장한 감정을 담아서"이할미우트"라고 여러번 되풀이 말했다. 마지막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팔을 잡더니 오호토의 옆으로 끌고갔다. 두사람은 그들의 행동이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그들 특유의 걱정되는 웃음을 보였다. 다행히 나는그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다.

나는 이이상 이방인이아니고 리틀힐스의 언덕밑에서 사는 이할미우트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엔 너무 간단하고드라마틱한 것이 없어서한참동안 이 행동의 깊은 뜻을 알아차릴수가 없었다.

이 간단한 의식으로 오텍과 오호토에 의해 내가 이 땅에 양자로 받아들여졌을뿐만 아니라 이두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는것을 안게된 것은 한참후의 일이었다.

나는 그들과 의형제가되었는데 이 관계는 정의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것은 서로가 아주 완전하고 이해할수 있는 우정의 근거에서만이뤄지는 것이었다. 내가 원한다면 오텍과 오호토가 가진 모든 물건을 함께쓸수 있고, 또 부인까지도 함께 취할수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영상은나에게 억지로 떠맡겨진것이 아니었다. 의형제로서 나는 나를 선택한 각자의 분신이었다. 나는 그의 반영된 영상이었지만 현실의 육신은 아직도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내가 아무 꺼리낌없이 상통할수 있으리라는것이 통례였다. 그리고 내가 이할미우트 사람으로 태어났던들 나는 생각없이 상통했을 것이다. 그러나 백인으로서 나는 무의식중에 이법을 이행못한다는 것을 오호토와 오텍에게 헤아릴수없이 수차에 걸쳐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둔 특별한관계를 취소하면서 까지 거절하려고 들지 않았다.

(계속)

◇에스키모인들의 헹가레 — 해마다 6월이면 곳곳의 에스키모 부락에는 온통 축제가 벌어진다。 바다사자 가죽으로된 모포위에 그해에 가장 많은 사냥을 한 젊은이를 태우고 하늘높이 치켜올린다。 이는 좀더 먼바다를 보며 다음해에도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뜻이다。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8

< 금주의 스페샬>

Planters Peanuts Snack Pack	27/40¢	Net 6.65
Planters Dry Roaste Peanuts	20g 325g	1.45 1.95
Planters Vac. Pak. Mixed Nut (With peanuts)	350g	3.74
Planters Vac. Pak. Mixed Peanuts	350g	3.15
Reg. Size Choco Bars (all kinds)	36/40¢	9.95
Neilson W-O-P Box Chocolet (asst)	12/2.52¢	11.89
After Eight (Per Dz.) 200g	12/2.45¢	18.00
Envitation Mints 137g	12/2.52¢	18.60
M.C. Toffee (Per Box)	36/40¢	9.75
Lifesavers Candy (Per Box)	24/30¢	4.35
Fruitella (Per Box)	36/25¢	4.99
Lifeseavers Lollipops (Per Jar)	96/10¢	5.99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MR. 김 789—7214

DOMINION SMALLWARES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981년 LUXURY
CONVERSION VAN
TOWNE TRAVELLER
(FULLY LOADED)
SALE PRICE : $20,183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물 일체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533-2361 MRS. KIM

쥬스바에서 파트타임여자 헬퍼구함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베이비시터 구함 :
입주하셔서 베이비시터 하실분
☎ 535-4441 미세스 김

키친헬퍼및 접시닦을 분 구함.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 환영
☎ 960-6405 4 AVENUE ROAD. TOR.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534-3338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298-3383 마이크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
(오후5시~오후11시)
☎ 466-3995 QUEEN E. 지역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도나스 샾에서 캐시어 구함
여자(아침8시~오후4시)
남자(밤12시~아침8시)
☎ 531-2689 1468 QUEEN ST. W.

급 구
●스토어 매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풀타임 캐쉬어 구함
☎ 742-0800, 241-4755 미스타 차

주말에 맥스밀크에서 일하실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KINGSTON & MIDLAND
☎ 266-3644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 구함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람
☎ 964-3354

도나스 샾 헬퍼구함 : FULL TIME=3시~11시
PARTIME=토3~11시, 일 9~9시
☎ : 782-7409(오전중)

주방헬퍼2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536-0290
한 국 관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WEST근처
☎ 767-0762 미스타 김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미싱자수 기술자 구함 :
자격2년이상
☎ 690-3434 미스타 유

FULL TIME가게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762-1572, 769-9854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윌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매매및 양도

22년된 꽃가게 매매 : F. T. D와 U. F. C멤버쉽이 있음.
☎ 826-1992, 저녁6시이후 826-3246 SANDER JOHN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배리지역)
주매상 : 8.000달러, 리스 : 4년+5년
직접방문 요망
☎ 705-726-5224

그로서리스토아 매 매
☎ : 265-0400 MR. 이그나지오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FRUIT & FLOWER가게 : 3개월전 OPEN
전부 새장비, 주매상 4000 4500 권리금 3만달러
917 KINGSTON RD.
☎ 691-6768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가게있는 건물 팝니다 :
주매상 $3.500 이상
☎ : 690-3382

부 동 산 매 매
동부끝에 있는 방 여섯개의 집.
즉시 입주가능, 모게지가 없음.
ASKING $79,500.00
☎ : 461-5463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80년도 GMC VAN추럭 팝니다.
2만km
☎ : 923-6074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헐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잔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 · 전기 · 개스 · 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디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 - 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식 품 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밝은웃음 넓은마음, 희망솟는 우리가정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颱風、南部횡단 強打기세

오늘 木浦上陸…東海빠져
嶺湖南 농작물 被害예상

제18호태풍 애그니스는 2일 전남 木浦등 남서해안으로 상륙, 동해안으로 빠져나갈것이 확실하다. 중앙관상대는 1일하오 태풍 애그니스는 2일 상오9시께 濟州 서쪽 1백30㎞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진로는 남서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질 것 같다는것. 또 서해안 최북단일 경우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 江陵남쪽으로 빠져나갈것 같으며 최남단일 경우에는 남해지방으로 흘러갈수 있다고 예보했다.

서울·京畿·忠清지방에도 注意報내려

한편 영향권이 최고 반경 5백㎞인 태풍 애그니스는 1일밤 이미 濟州지방을 엄습한데 이어 어떤경우라도 삼남지역에 피해를 입힐것같다.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애그니스는 1일하오5시현재 중국상해 동남동쪽 약 1백80㎞해상(북위30·8도, 동경 1백53·2도)에서 서서히 북진하다 이날밤 진로를 북동진쪽으로 바꾸어 우리나라 남서해안에까지 진출, 전국이 태풍영향권에 들게된다는 것이다.

지난27일 북위17도5분, 동경1백39도5분에서 발생한 애그니스는 그동안 20㎞의속도로 북부서진하여 1일상오 9시현재 중국상해 남동쪽2백㎞해상에서 속도를 10㎞로 줄인후 이날 정오까지 정체상태에 있다는것.

이에따라 관상대는 지난31일하오5시30분을 기해 남해일원과 서해남부 제주도지방에 태풍경보를 내렸고 1일상오10시에는 서해중부 및 호남내륙지방에, 이날하오 1시를 기해서는 서울 경기 충청도지방에 각각 태풍주의보를 내리는등 전국에 태풍경고령을 내렸다.

관상대는 특히 서해안지방에는 폭풍우가 강하고 내륙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상대는 이태풍이 진행방향을 바꾸지않고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경우 위력이 한층더 강화되어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해일이 일어 더큰 피해도 남길우려가있고 서울 경기및 호남지방은 평균2백㎜정도의 호우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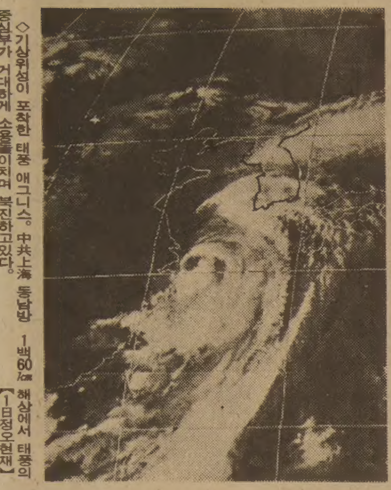
또한 태풍 애그니스의 중심기압은 9백56밀리바로 중심최대 풍속은 40m인데 반경 2백㎞내에는 초속 25m의 폭풍우권, 반경 5백㎞내에서는 초속 15m의 폭풍우를 동반하고있다.

어간 濟州지방에는 1일하오 3시 현재 1백47·8㎜의 폭우가 쏟아져 지난30일부터 내린 강수량은 모두 2백45·8㎜에 달하고 있다.

애그니스의 위력

中心氣壓	955밀리바
最大風速	40m
平均速度	10㎞
進路	北進
暴風雨圈	반경 200㎞內25m 반경 500㎞內15m

海岸엔 海溢
內陸엔 豪雨



◇기상위성이 포착한 태풍 애그니스。中共上海 동남방 1백60㎞해상에서 태풍의 중심부가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며 북진하고있다。【1日정오현재】

漢江연변 洪水注意報
上流 5개댐 水門열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일상오 漢江연변에 홍수주의보 제1호를 발표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중부지역에 걸쳐있는 강우전선의 영향으로 漢江유역에 평균1백9㎜의 호우가 내려 1일하오4시현재 漢江인도교지점의 수위가 7m로 지정홍수위 4m50㎝를 초과, 시간당 10㎝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기압골의 이동으로 비가 걷히고 있어 경계수위(8m50㎝)까지는 이르지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31일부터 강원도내에 내린 평균1백15·2㎜의 폭우로 華川댐등 北漢江상류 5개댐이 만수위에 육박, 1일새벽부터 각댐의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華川댐은 이날상오5시부터 수문 1개를 모두열어 초당 9백86t씩을 방류시키고 있으며 春川댐도 수문 12개중 10개를 열어 초당1천3백25t을 흘려보내고있다. 또 衣岩댐은 수문 14개중 8개를, 八堂댐은 수문15개중 10개를, 淸平댐은 수문25개중 9개를 열어 초당 1천5백80~7천4백21t의 물을 방류하고있다.

死亡·失踪 24명으로

한편 지난달30일부터 내린 폭우로인한 인명피해는 1일하오현재 사망15명, 실종9명, 부상25명으로 최종집계됐다.

深夜 水防對策 점검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31일 밤 10시40분부터 1일새벽 0시30분까지 1시간50분동안 서울市廳과 기타 행정기관의 수해방지 야간근무실태를 점검했다.

이날밤 10시40분 청와대를 출발한 全대통령은 서울市廳에 도착, 숙직근무자로부터 수방대책에 관련한 숙직근무상황을 보고받고 이어밤11시 서울市제1별관의 下水局에 설치된 서울시 수해방지대책본부에 들러 수방대책본부장으로부터 30일하오와 밤늦게 서울일원에 내리고있는 폭우와관련, 수해예방대책에관해 보고를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비가 더 내릴경우에 대비해서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대책본부는 구청과 동회단위로 사고가발생할경우 비상연락하며 인원과장비동원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했다.

보츠와나國 公報相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일상오 청와대에서 윌리엄·브록美通商대표부대표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徐錫俊상공부장관과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보츠와나의 다니엘·퀠라보게公報相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李光杓문공부장관이 배석했다。

北傀側 "그런事實없다" 생떼
"卓上警告는 이번만"
偵察機·白翎島 도발 強硬대응
유엔側 停戰委서

【板門店=韓隆기자】군사정전위원회 제407차 본회의가 1일상오11시 板門店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엔군측수석대표 제임즈·G·스톨스미 해군소장은 북괴의SR 71정찰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미그기의 白翎島상공침범 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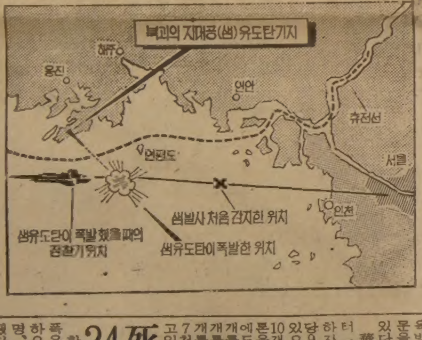
스톨스소장은 『SR 71기에 대한 공격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일뿐 아니라 침략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또다시 이같은 도발이 자행될 경우 유엔군은 항공기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톨스소장은『이번만은 회의탁상에서 경고하지만 차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절대로 용납하지않을것이며 북한측은 우리의 경의를 잘못 인식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공산측대표 韓柱慶은 유엔군측의 항의에 대해『북한은 SR 71기에 대한 공격과 白翎島월선비행을한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스톨스소장은 북한측에 이번사건의 책임자에대한 처벌과 적대행위재발이없도록 보장할것도 요구했다.

이날 板門店에는 미국 ABC·NBC·CBS등 3대방송을 비롯한 내외신기자 60여명이 취재했다.



"韓半島평화、東亞안정에重要"
北韓과 經濟文化교류도확대
日外相 外交青書서

【東京=日=宋孝彬특파원】 소노다일본외상은 1일 열린 각의에 내놓은 81년도 일본외교청서에서『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히고『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노다외상은 한반도 문제에 언급,『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일본은 그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일본등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긴밀히 연락·협력하여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재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노다외상은 한국과의 우호협력증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문화교류를 서서히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에 관해 소련의 군사력증강과 제3세계로의 진출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서방진영의일원으로서 구제국과 대소전략을 일치시켜 주체적인 입장에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교청서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방위노력을 평가하고 美·日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며 일본도 자위력정비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쿠바IPU총회 16명代表團파견
入國비자 받아

국회는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리는 제68차국제議會연맹(IPU)총회및제 1백29차 이사회에 蔡汶植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하는 16명의의원대표단을파견한다.

한국대표단의 쿠바 入國비자는 지난달 24일 日本주재 쿠바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3일 현지로 떠날예정이다.

한국 의원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蔡汶植(民正) ▲이사=吳世應(民正) 柳漢烈(民正) ▲대표=李海元 金瑀任 哲淳 鄭善昊 金幸子 李慶淑(이상 民正) 許景九 吳上鉉 韓光玉(이상 民韓) 李萬燮 金鍾河 高貞勳(이상 國民) 李龍澤(이상 議政)

氣象機構 사무총장 빈밀센氏 오늘來韓

世界氣象機構(WMO)의 사무총장 C·빈밀센박사가 정부초청으로 2일 來韓한다。

오른쪽進行 颱風 被害더크다
작은것도 水爆 20메가톤級 4백개의 힘
移動하면서 弱化 일부만 地·海上에영향
强度따라 4등급… 우리나라 年1·5回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저기압인데 그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크다. 이 위력은 흔히 핵폭탄과 비교되는데 작은 태풍이라도 수소폭탄 20메가톤짜리 4백개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있으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에 비하면 1만개를 합친 파괴력이라는 것。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같은 힘은 태풍 자체가 이동하는데 거의다 써버리고 나머지 일부만 지상이나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통 태풍은 그 위력에 따라 ◆중심기압 9백20밀리바이하 초속65m이상일때 초A급 ▲9백20~9백50밀리바에 초속50~65m일때 A급 ▲9백50~9백80밀리바에 초속30~50m일때 B급 ▲9백80밀리바이상 초속17~30m일때 C급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태풍은 연평균1·5개이나 지난62년에는 5개나 상륙, 최고를 기록했다. 또 월별로는 8월이 가장많고 다음이 9, 7월, 6월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가운데 최악의것은 1959년9월17일 남해안에 상륙, 大邱지방을거쳐 동해안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라호。 중심기압 9백51·5밀리바의 B급태풍이었던 사라호의 피해는 사망6백3명 부상2천5백33명 실종2백46명의 인명피해와 6백61억원의 재산 손실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및 극동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해상에서 년24~25개씩 발생하는데 이름은 영어로 타이푼이다.

이같은 태풍은 모두 포물선을 그리며 진행하는데 태풍의진행방향을 중심으로 볼때 오른쪽 반원은 위험지역으로 피해가 크고 가항반원이라고 하는 왼쪽 반원은 피해가 적다.

또 태풍은 육지에 상륙할 경우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세력은 약화되고 육지를 통과, 다시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태풍으로서의 위력을 잃고 열대성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소멸되는것이 통례다.

특히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해마다 로마자의 알파베트 순으로 찾…

【安孝燮기자】

◇연도별 태풍피해

발생일자	태풍이름	피해지역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원)
59·9·17	사라	남해안및嶺南지방	사망178 실종173	6백25억
62·8·23	카르멘	釜山·嶺南해안	사상 66	41억
63·8·8	오펠	嶺·湖南지방	사상181	
64·6·19	셜리	嶺·湖南지방	사망77 실종23	1백30억
66·8·30	베티	湖南지방	사망 6	87억
70·7·16	올가	東海岸지방	사망42 실종14	2백9억
70·8·30	빌리	濟州·木浦지방	사망15 실종21	1백78억
71·8·5	올리브	東海岸지방	사망26	25억
74·7·16	길다	嶺南·濟州지방	사망33	22억
76·8·13	빌리	京畿·江原지방	사망37 실종147	66억

1959年「사라號」때 6百3명사망

社會漫評

좀더 북쪽에 칠만한곳이 있는데…

地平線

프랑스속담에 여행은 젊음을 만든다고한다. 새로운풍경, 인정, 풍속을접하면 뭔가가 자극을 받게마련이고 로망이 생기는 모양이다. 모파상도 그의 기행문에서 묵은현실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뛰어들면 반드시 꿈이 솟는다고 말한일이있다. 아뭏든 여행은 즐겁고 새로운 출발이된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해외연수가 끝나자 이번엔 工大生의 겨울방학 중동아르바이트 계획이 들려온다. 정부는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대생 2백명을 겨울방학을이용, 우리나라업체의 중동건설현장에 보내 현장실습을겸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수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숙식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에대한 왕복항공료는 다시하나 대학생들의 중동아르바이트에 큰어려움이 있지는 않겠다.

▼다만 공대생들의 중동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바다넓은 해외연수, 해외아르바이트를 생각할필요가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을 본따면 어떨까하는 생각도든다. 또 중동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스케일을 좀더 크게 잡으면 어떨까. 농대생들의 동남아 새마을봉사단이 있을수 있을것이고 의대생들의 아프리카 무의촌봉사단도 있을수 있다. 아니 재학생만 포함시킬것이 아니라 국위도 크게 떨치고있는 이때 차원을 높여 대학원생, 졸업생까지 합친 대규모 국제교류단체를 구상하면 안될까.

▼해외 연수의 효과는 딴면에도있다. 국제스포츠 경기때문에 우리나라엔 大型붐, 長身붐이 불고있지만 유럽에선「스몰 이즈 뷰티풀」(E·F·슈마하교수)이란책이 날개 돋친듯 팔리고 小型化붐이 불고 있는데 短身의 나라인 한국에선 외면당한채이다. 종합상사나 경제단체등에서 해외정보를 제대로입수했다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도「小型」이라야 좋다는 풍조가 불어왔을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조차 1백50cc는 거의 안팔린다. 90cc 1백25cc라야 기를 펴는데 일본에선 50cc가 85%나 되니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오디오도 미니가 해외에선 인기절정인데 우리나라는 요새야 눈을돈것같다. 계산기, 세탁기, 화장품도 미니라야 행세한다. 립스틱용기마저 12㎜가 8·5㎜, 콘팩트두께는 16㎜에서 8·2㎜로 줄고있는 세상이다. 한데 우리나라에선 아직도「스몰 이즈 뷰티풀」붐이 잠자고있으니 딱하다.

▼국내에도 사우디등 중동학생이 상당수 와있다. 기술계통뿐만아니라 인문계 사회계를 포함한 선진국과의 연수생 상호교류계획이 이제부터라도 본격화하기를 바랄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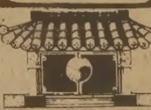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부동산 매매

※바라이어티 스토어

주매상 3천불
ALL OPEN, SHORT HOURS.
원래 주매상 4천5백달러. 시간 단축과 건물요일 단축으로 매상이 줄었음.

스토어 앞에 큰 아파트가 새로 서고 있음.

이층에 2 베드룸 아파트와 베첼러 아파트가 있음

ASKING 2만5천달러
부인이나 노인 혼자 운전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근무 할때는 매상이 크게 향상 될 것임

이윤이 많음

신용을 본위로 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 주세요.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이훈모 부동산회사

공 고

아래 명기된 축구선수들은 축구협회에서 개최한 제62회 전국체전파견 선발전에서 선발되었음을 공고하며 체육회의 최종선발회의를 갖고저 하오니 선수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9월7일 오후7시

장 소 : 재 캐나다대한체육회 사무실
635 BLOOR ST. W.
☎ : 537-0745

모국체전 선수선발명단 —

김건후, 정기섭, 장광휘, 권도웅, 장관용, 김알렉스, 강인휘,
민태일, 이두형, 이두진, 김성원, 민재식, 정정화, 송명호, 김경원,
홍광표, 황영호, 최상길, 송규환, 최경기, 김운재, 염석호, 선난일,
박시범, 함철호, 이상태, 이상호, 권순정, 권순성, 한석주, 권정섭.

재 캐나다 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제1회
바시티배 쟁탈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제상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센디 김경서 문영환
김문광 조육덕 김제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백 윤호영
최이라 조동식 정세용 김은하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世界곳곳서 잇단 反美테러

나토空軍司 폭발사고
레이건엔 爆彈우편물
駐페루 公館서도 연쇄爆破

【람슈타인空軍基地(西獨) 31日UPI·藝=聯合】서독람슈타인의 유럽주둔 美공군사령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중부유럽공군사령부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31일상오7시45분(한국시간하오2시45분) 테러분자들이 장치한 것으로 믿어지는 강력한폭탄이 폭발하여 사령부건물일부가 파손되고 20명이 중경상을입었다고 공군사령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공식발표를통해 이폭탄이 공군사령부의 한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에 장치되었다가 폭발했으며 이로인해 미국인18명과 서독인 2명등 모두 20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접 란트슈틀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폭탄이 터질때 사령부건물의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부근건물의 벽들이 파손되었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31日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을 受信人으로한 私製우편폭탄이 31일상오 디트로이트市 중심가의 한우체통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이우편물속에 6개의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이들어있었으나 시한폭발장치는 없었으며 폭발물제거반이 이폭탄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우편물안에서 쪽지하나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리마(페루)31日AP·UPI=聯合】페루 수도 리마중심가에 자리잡은 美대사관및 대사관저를 비롯한 미국공관과 미국인 기업체등 7곳에서 31일 새벽 좌익테러분자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강력한 폭탄폭발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2명이죽고 7명이 부상했으며 건물과 가구등이 파손되었다.

페루경찰은 이날 새벽2시(한국시간 하오 3시) 리마중심가에 자리한 美대사관정문출입구와 이곳에서 9구획 떨어진 대사관저에 폭발물이 투척되었으며 거의동시에 포드자동차지사 뱅크·오브·아메리카지점 코카콜라대리점 및 카네이션·밀크회사 사무실에 다이너마이트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유럽聯合空軍司 폭발현장 中部유럽주둔 聯合軍공군사령부주차장에서 31일 폭발사건이 발생한직후 무장한 군인이 경비를 맡고있다. 【람슈타인공군기지 (西獨) 31日 AP電送=聯合】

軍事費 2~3백억弗삭감
레이건, 豫算균형위해 84년까지

【로스앤젤레스1日AP=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오는84년까지 예산의 균형화를이룩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의군사비지출계획에서 2백억~3백억달러를 삭감할것으로 1일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부관리들은 이같은 군비삭감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인플레를감안, 연7%까지의 방위비증가 공약을 지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관리들은 예산균형화를 위해 오는83년과 84년에 모두 7백50억달러의 예산절약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방위비삭감액이 3백억달러로 결정될 경우 나머지 4백50억달러는 이미 3백50억달러가 삭감돼있는 82회계연도(81·10~82·9) 사회부문 예산에서 깎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中央阿 軍部쿠데타

【방기(중앙아프리카)1日AP=聯合】중앙아프리카군부는 1일상오 정권을인수했다고 믿을만한 소식통이 말했다.

사우디 產油量 10% 감축

【바레인1日藝=聯合】세계최대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일 다른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들에대한 우호표시로 자국산유량을 10%감축했다. 그러나 석유전문가들은 사우디산유량이 금년말께 다시 증가할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석유성소식통들은 이미 자국산유량이 지난10월이래 日産1천만배럴 이상에서 日産약9백만배럴로 감축돼왔다고 밝혔다.

海外駐在 미국인 보호대책 강화

【워싱턴31日UPI藝=聯合】미국은 31일 지난주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잇달은 폭발물테러에 깊은우려를 나타내고 해외주재 美외교관과 미국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나섰다.

딘·피셔美국무성대변인은 지난주말 오스트리아와 페루·西獨및 이란에서 일어난 잇단 폭탄테러사건을 개탄하면서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새로운 反美테러행위의 서막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또한 어떤 일정한 테러유형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아리

순화교육 1년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순화 교육이 1년을 맞았다.

정부는 그사이 지난날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던 부정, 부패, 부조리, 범죄등을 집중적으로 다스려 질서를 회복하는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80년8월4일 국보위의 사회악일소특별조치에 따라 81년1월24일까지 벌인 이른바 三淸5호사업에서만도 군인4만8천여명과 경찰관75만여명등 80만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어 6만7백55명의 사회악사범을 검거했다.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의 손길을 뻗기는 이번이 건국후 처음의 일인가싶다.

더구나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보다 순화교육을 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까지 알선하는 후속조치의강구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는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는 그동안 숨을 죽이며 눈치만 보던 폭력사범들이 고개를 들기시작하여 급기야는 도로아미타불로 되돌아가는것이 상례였다.

이런 사태의 재판을 막기 위해 이번엔 당국이 전담반을 편성하고 청부폭력및 청·소년폭력범죄예방에 계속 힘을 다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이와같은 노고에 힘입어 이제는 폭력사범이 22.8%나 줄었고 또 앞으로도 줄어들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모든 나쁜것은 주로 엄하게 처벌하고 무겁게 다스리는데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에 한발 앞서서 범법을 하지못하도록 미리 더 보살피는 배려도 따랐으면 한다.

조선시대말기의 사학자요 실학자인순암(順庵)안정복(安鼎福)은 그의 저서 임관정요(臨官政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을 잘다스리는 자는 이를 끌어들여 평평하게 하고 사람을 잘 교화하는 자는 이를 잘 어루만져서 안정하도록 한다. 물이 평평한즉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없으며 백성은 안정을 얻으면 법령을 범하지 않는다…』

비록 사회적인 상황에는 그때와 다른것이 있어도 사회질서를 되찾고자 하는 오늘날에도 새삼 되씹어볼만한 얘기인것같다.

◇못썰매위의 善行수도승 한 스위스인 수도승이 알프스산록의 하계스키장에서 4백18개의 못이박힌 구조썰매위에실려 고행을 견뎌내고있다. 그는 이 썰매를 타고 산밑까지 35분간을 무사히내려왔다고. 【키스턴=聯合】

이란 잠정大統領委 발족
國會議長·大法院長등 2人으로
故라자이·바호나르 市民 오열속 葬禮

【테헤란·베이루트31日AP=聯合】이란헌법위원회는 31일 하세미·라프산자니국회의장과 무사비·아르데빌리大法院長등 2명으로구성된 잠정 대통령위원회에 국민투표선포권을 제외한 일체의 대통령권한을 행사하도록위임했다.

헌법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國政은 헌법하에서 유지돼야하며 수상, 국회의장, 대법원장등 3부수뇌들로 구성된잠정 대통령위원회는 그중1명의 유고시에도 계속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위원회는 헌법제1백30조, 1백31조및 1백32조에 의거, 50일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된다.

한편 라자이 대통령과 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수상의 시신은 이날 2백50만여 테헤란시민들이 비탄속에 오열하는가운데테헤란의베헤시트·자라묘지에안장됐다.

장례식은 이날상오 테헤란 시민들이 운집한가운데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됐으며 시민들은 묘지에 이르는 장례행렬을 따르면서 바니·사드르前 대통령, 좌익反政세력인 무자헤딘·할크지도자 마수드·라자비의 처형과『美國에 죽음을』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回教혁명 후퇴못해"
호메이니 演說

【런던31日路透=聯合】이란회교혁명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은 31일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등 이란정부 지도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폭탄테러사건에 처음으로 언급, 이같은 최근의『암살사건들』이 이란회교혁명을 후퇴시키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청취된 테헤란방송은 호메이니옹이 이날 그의 자택에 몰려든 이란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을 통해 그같이 말하면서 現이란회교공화국을 위해 수많은 이란人들이 목숨을 던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3명 逮捕 테러용의자로

【앙카라31日UPI=聯合】이란회교혁명수비대는 31일 2명의『反革命분자들』을 포함한 3명을 수상집무실 테러용의자로 체포했다고 앙카라에서 청취된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들 3명의 용의자들이 알리·라자이대통령과 자바드·바호나르 수상의 장례행렬군중사이에 끼어있다가 체포됐다고 밝히고 그중 2명은 수류탄을 휴대한『反革命분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 다른 1명은 무자헤딘·할크 좌익反政조직소속게릴라로서 군중들에 의해 붙잡혀 혁명수비대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回教黨首하메네이

【테헤란1日AP=聯合】이란최고국방위원회위원겸 국회의원인 호자톨레슬람·알리·하메네이가 지난 8월30일 폭발사고로 사망한집권 회교공화당(IRP)당수인 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 수상의 후임으로 새회교공화당수에 선출됐다고 회교공화당 기관지 회교공화보가 1일보도했다.

◇이란大統領등 爆發희생자 영구행렬 故 모하마드·알리·라자이 이란대통령과 호자톨레슬람·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수상및 기타 희생자들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31일 수많은 애도객들사이를 뚫고 테헤란시내를 지나가고있다. 【테헤란31日AP電送=聯合】

독자國際역할모색
日, 對美관계점차줄여

【워싱턴31日=聯合】일본은 2차대전패전이후 처음으로 긴밀한 對美관계를 서서히 늦추면서 보다 독자적인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있다』고 31일 미국의 시사주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이날 발매되기 시작한 7일字號 東京발 기사에서『많은 일본인들은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공업국가에도 도전할수있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영광에 도취되지않고 그들의 작은섬나라가「아시아의 프랑스」가 되는 것을 운위하고있다』고 말했다.

南阿共규탄 결의안
美 安保理서拒否權

【유엔본부31日AP=聯合】미국은31일 유엔안보리에서 최근 앙골라를 침공한 남아공을규탄하고 앙골라로부터의 남아공군 즉각철수를 요구하는제3세계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결의안을폐기시켰다.

兩獨 頂上會談가능
호네커 슈미트首相

【베를린31日AP=聯合】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과 에리히·호네커 東獨공산당서기장겸 국가평의회의장이 곧 東·西兩獨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증대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다시 고개드는 反猶太·新나치
빈 유태敎會 피습사건의 意味

유태인들에게 다시 히틀러의 망령은 되살아나고있는 것인가.

지난30일 빈중심가에 있는 한유태교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교인들에게 수류탄과 자동소총이 불을 뿜었다. 2명이 죽고 19명이 부상했다. 범인2명중 1명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이탈단체인 알·아시아파소속 행동대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유태교회당 피습사건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지난10월 파리에서도 우익단체인 유럽민족파시스트(FNE)가 유태교회당에 폭탄을 던져 4명이 죽었다. 또 2차대전중 유태인들을 나치수용소로 보내는집결소였던 드란세이에 있는 교회당은 방화로 전소되었다. 수많은 유태교회당 건물벽은 유태인들을 경멸하는 낙서로 얼룩져있다.

빈소재 유태인문제기록센터소장인 시몬·비젠털은『反유태주의의 부활』을 경고하고 있다.

비젠털소장은『70년대가 좌익테러시대였다면 80년대는 우익테러시대이다. 우익테러는 反유태주의·新나치주의를잉태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南美아르헨티나에서의 유태인박해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중진언론인 유태인 자보코·티메르먼씨는 77년4월 당국에체포되어 2년6개월동안 감옥살이를 한후 이스라엘로추방되었다.

國際焦點
西獨비롯 세계各國서 胎動
80년대 右翼테러 主流이뤄

티메르먼씨는 옥중체험기『이름없는 죄수, 번호없는감방』이란 책을 최근에 발간, 아르헨티나에서 자행되는 反유태 테러진상을 폭로했다.

처음 6개월간은 구타와 전기고문으로 시오니즘과 유태인배경을 신문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아르헨티나 감옥신문실벽에는 히틀러사진이 걸려있다고 썼다.

그는 76년군사정권이 들어선후 좌익테러를 소탕하는 와중에서 나치주의자들이 아르헨티나정보기관을 장악, 나치독일과 같은 反유태주의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유럽 미국 캐나다등지에서도 新나치단체가 활성화하는가하면 新나치테러사건에 경찰간부까지 연루되는등사태는자못심각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독의 新나치단체들도 최근 조직을 재정비, 이미 명성을떨치고 있는 호프만파를 비롯 23개파에 1만7천명이 회원으로 가담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엔 각각 20여개의 극우단체, 영국에는 9개 단위우익단체가 활약하고 있다.

런던, 함부르크, 앙카라, 뉴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준동하는 新나치그룹은 옛나치조직과같이 단위조직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3월 서독 레클린가우센경찰서장은 집에 新나치책임자를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임됐다. 또 프랑스 경찰간부 폴·루이·뉴랑은 新나치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역시 해임됐다.

슈미트서독수상요청으로 지난1년간 조사가 진행되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국민18%가 나치치하를 동경하고 13%가 맹렬한 反유태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反유태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산 폴란드에서도 지난봄 反유태주의데모가 있었다.

유태인들은 끊임없는 박해속에서 살아야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태인들은 유랑생활 2천년동안 철저히 친족결혼을 고수하는등 6백13종에 달하는 교훈을 지키며 고유성을 지켜왔다.

살아남기위해 어느민족보다도 교육에 정열을 쏟은 결과 어느시대건 우수한 두뇌를 배출하고 남달리 상술에 능했다.

이같은 유태인들의 생활태도는 유태인이외의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었다.

특히 19세기들어 마르크시즘, 나치즘등 모든 사상들은 유태인을 인류의 적으로 몰아 세웠다. 돈많고 머리좋은 유태인들이 세계지배를 꿈꾸고 있다는 혐의마저 두기도했었다.

2차대전중 정확한 통계는 알 수없으나 6백만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주장도있다. 그날의 악몽을 되살리듯 反유태주의는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崔海雲기자】

뿌리깊은「全方位·등거리外交」못벗어
日의 外交靑書

【東京1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외교근황을 밝힌 1일의『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근간인『전방위등거리외교』의 테두리를 아직껏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노다외상이 각의에 보고하여 승인된 이외교청서는 57년부터 시작해서 25호째 발표된것인데 예년과같이 소련의 군사적위협에 의한 긴장고조에 관해서는 서방진영과 인식을같이하면서도 이에 따른 국제적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자세다.

말하자면 소련이 위협에대한 서방진영의 대응이라는「總論」에는 찬성하지만 소련의 군사적위협에대한 일본의 역할분담이라는「各論」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이다.

서방진영의 일원이라는 위치를 정립하면서도 평화헌법을 내세워 군사적 협력은 할수 없다고 천명하고 그대신 국제정치·경제면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5월 미·일정상회담이후『美·日동맹관계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에워싸고 이또(伊東)외상이 사임하는등 일본의 대미외교가 갈팡질팡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외교청서에서 미·일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미·일외교의 기축을 확고히 구축했다.

외교청서는 작년과같이 한반도정세에 관해『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은 북한과의 경제·문화교류를 서서히 확대하겠다고 천명, 아직껏 등거리외교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노다외상은 이번외교청서에서 미국의 군사적 방위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방위노력에 대해서는 확고한 언급을 회피했다. 서방진영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국제적 역할 분담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오늘의 世史 <2일>

▲姜宇奎의사 齋藤총독에게 投彈	(1919)
▲聯合軍, 벨기에 進入	(1944)
▲日本, 미주리號 함상서 항복문서에 조인	(1945)
▲聯合軍사령부 북위38도선에 美·蘇양군분할 진주 발표	(1945)
▲政府, 말레이지아 정식 승인	(1957)
▲蘇·쿠바 군사경제원조협정 조인	(1962)
▲美·中共間 전화개통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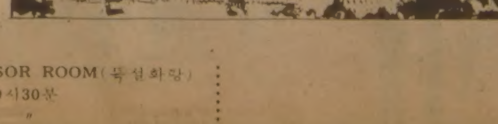
현대한국작가초대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무실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颱風피해극복 초비상

——애그니스號 北上따라

船舶등 긴급대피 지시

全南 오늘初·中·高休校·체력장 연기

農作物피해 걱정 농민들도 밤샘

애그니스는 끝내 한반도를 할퀼것인가. 태풍피해의 걱정속에있는 전국은 1일 숨돌릴틈도 없이 濟州道 남동쪽 2백㎞까지 북상해있는 태풍 애그니스호에 온신경을 집중시키고있다. 수직으로 북상해서 중국 山東반도쪽으로 빠져줄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남쪽을 관통하며 풍년을 눈앞에둔 논과밭을 쑥대밭으로만들어 놓을것인가. 1일밤을 지새는 정부와시민, 농민들의표정에는 온통 초조와 긴장이감돌았다. 태풍애그니스의 영향권에 들기시작한 1일하오늦게부터전국은 태풍피해를극복하기위한 초비상에돌입했다.

농수산부는 이번 태풍으로 추수를앞둔 벼농사및 과수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범람과 농경지침수를 극소화하기위해 전국저수지의 물을 미리빼놓을것을 당부했다.

수산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전에 모든 어선들은 인근 대피항으로 피난토록 조치하고, 소형선박은 육상으로 끌어올려놓도록 지시했으며 부산항, 인천항등 주요항구도 이날 여객선,화물선, 어선들의 입출항이 중단되었다.

태풍의 주요영향권이 영·호남일대 해안일 가능성이있어 전남도는 31일하오7시부터 각 시·군·읍·면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전남도는 이날 비상령에서 각종 선박,농작물,위험축대,제방등의 피해를 사전에막을수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과 긴밀한연락을취해 인명피해가 없도록하라고 시달했고, 전남도경도 31일하오6시부터 각경찰관서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위험지대의 순찰을 강화하라고지시했다.

보사부는 태풍피해 예상지역에서의 수인성질환과 식중독사고발생에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 방역당국은 이날 지시에서 수해지역의 우물이나 간이상수도등 식수원을 철저히 소독하고 주민들에 대해 콜레라및 장티푸스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시달하고, 예방약품과 살충제 1천갤런, 살균제 2천㎏을 긴급 배정했다.

또 전남도교위는 1일 태풍의 접근에따라 주간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야간학교는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1일부터 실시예정이던 麗川·光陽·珍島·海南·新安등 5개군에서의 체력검사 일정을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교위는 태풍 애그니스호가 북상함에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일하루동안 도내 1천4백62개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휴교토록 긴급지시했다. 도교위는 또 도내 33개 각급학교에서 실시중인 고입 대입체력검사도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지붕묶고 貯水池물 미리빼내" 農水産部당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제18호태풍 애그니스의 상륙에대비, 다음사항을 준수해줄것을 당부했다.

▲허술한 지붕을묶고 간판등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제거할것▲선박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따로띄어 서 묶어둘것▲해일이 있을지모르니 해안시설물을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때는 가까운 邑·面에신고할 것▲비닐하우스등 특용농작물및 농작물피해를 방지할수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할것 ▲소류지나 저수지의 물을 사전에빼내고 붕괴될 위험이 있을때는 가까운 읍·면에 급히 신고할것 ▲송전선통과지역에는 접근하지말고 옥내외 전기시설고장때는 자진 수리하지말고 신고할것.

颱風입김에 "가로수KO"

◇태풍 애그니스의 북상으로 전국에 태풍비상이 걸렸다. 경기 楊州郡瓦阜面 德昭一八堂간의 국도변에있는 많은 가로수들이 태풍의 영향으로 몰아친 돌풍으로 뿌리째뽑혀 쓰러져있다. 【崔東完기자찍음】

WBC 서울總會 7일 개막

地域대표·프로모터등 百50명 參席

세계권투평의회 (WBC) 81년도 총회가 7일상오10시 호세·술레이만 회장 (멕시코)을 비롯하여 7개지역 연맹대표 (아시아, 아프리카, 영연방, 북미, 중미, 남미, 유럽)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서 개막, 4일동안 세계프로복싱의현안문제를 토의한다. 지난63년 창설된 WBC총회가 아시아 지역서 열리는것은 69년 마닐라 총회이후 두번째인데 WBC총회를 한국에유치한 한국권투위원회 (KBC)는 1일 하오 회의장인 신라호텔에 사무국을설치, 각국대표 영접등 활동에 들어갔다.

알리·KO王산체스도 來韓

이번 총회에는 공식대표외 「알리아」(이탈리아) 미키·더프 (영국)」 등 유력프로모터와 최근링복귀를 발표한 前세계헤비급챔피언 무하마드·알리, KO강타자 윌프레도·고메즈를 8회KO로 물리쳐 화제를모은 WBC페더급 챔피언 살바도르·산체스 (멕시코) 선수가 방한할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현재 홍콩에 체재중이다.

총회의제는 총회에 앞서 6일 열리는 집행위원회서 확정되는데 한국은 이번총회서 세계랭커들의 수준향상을 위해 『세계 랭킹에 오른 선수들이 일정기간 다른 세계랭커와 의무적으로 경기를 가져야하며 이를 지키지못하면 세계랭킹서 제외 시킨다』는 내용의 제의를 할 계획이다.

한국 권투위원회(KBC) 梁正圭회장은 『WBC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프로복싱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BC총회에 앞서 3, 4일 이틀에 걸쳐 제23차 동양태평양권투연맹 (OPBF) 총회가 11개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最優秀선수 산체스 WBC 8월랭킹

【멕시코시티31日AP=聯】 세계권투평의회 (WBC) 는 지난21일 푸에르토리코의 윌프레도·고메스를 8회에 KO로 물리친 WBC페더급챔피언 멕시코의 살바도르·산체스를 8월의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한국의 WBC랭커 ▲미들급10위=朴鍾八 ▲웰터급5위=黃忠載 ▲슈퍼라이트급3위=金相賢 ▲라이트급10위=金光玟 ▲슈퍼페더급2위=崔忠日, 8위 李日爾 ▲슈퍼밴텀급6위=鄭巡鉉 ▲밴텀급3위=李承勳 ▲슈퍼플라이급챔피언=金喆鎬 ▲플라이급6위=金泰式

◇진창속 混戰 慶熙高와 仁川體高의 수중전. 후반막판에 仁川體 HB 劉敎泰⑥이 볼을 걷어내고 있다. 慶熙가 3-0으로 이겨 3회전에 올랐다.

慶熙·文一·信興 16強合流

靑龍旗축구

慶熙高 文一高 信興實高가 16強戰에 합류했다.

慶熙高는 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축구선수권대회 4일째 고등부2회전경기에서 仁川體高를 3-0으로 대파했으며 文一高는 天安農高에 2-0으로 완승, 각각 16강이 겨루는 3회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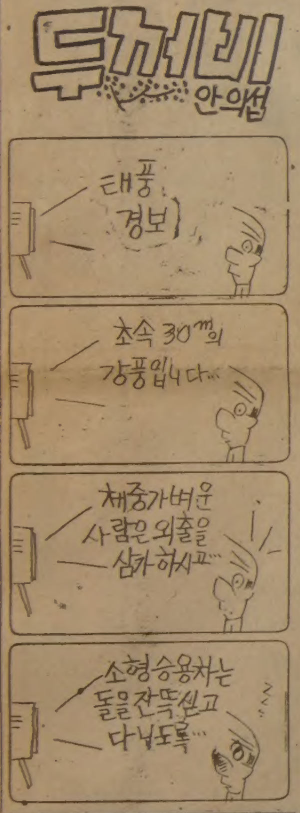
이대회 지난해 우승팀인 信興實高는 中大附高를 1-0으로 물리쳤다.

慶熙高는 전반15분 朴基奉이 센터링을시도하자 朴洙宗이 문전서 헤딩슛, 선제점을 올린뒤 후반10분 安建鎬가 李熙洙의 도움으로 골을 추가하여 2-0으로 리드했다. 慶熙高는 후반20분께 仁川體 FB 金振植이 백패스한 볼을 朴基奉이 가로채 단독질주, 한골을 더 보탰다.

文一高는 天安農과의 대전에서 전반15분 李炳哲의 활약으로 리드를 잡고 전반종료1분전에 李時高이 득점에 성공, 승리를 굳혔다.

◇제4일 전적 ▲고등부2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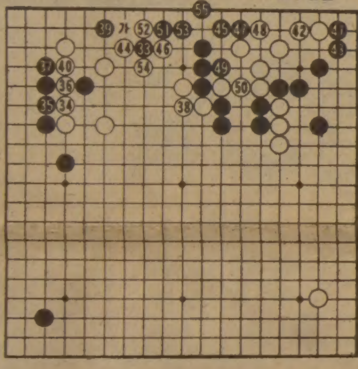
경희고 3 (1-0 2-0) 0 인천체고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3譜 33~55 (각5시간)



白(5段)張秀英 黑(4段)鄭銖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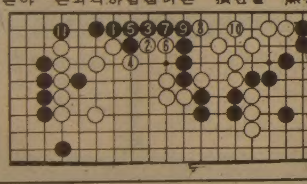
애초 예측한대로 상변일대에서 때이른 접전이 발발했다. 서로 끊고 끊기고 한 이곳 공방전은 그런대로 전국면에 확산하거니와 우선 黑33으로 근거부터 잡아야 할입장이다.

鄭5단은 여기서 그간에 보류해왔던 白34이하 40까지의 정석을 서슴없이 결정지었는데 그러나 국후편에서는 白이 약간 억울했다는 중론이었다. 34는 「가」 자리에 달려야 할 시기, 역으로 黑이 39에 달려온것이 아팠다는 얘기다.

鄭4단은 처음부터 노리고 있던 우상귀쪽 白에 黑41, 43의 공세를 취하다. 이 수로 중앙을 보강하면 무사하겠으나 선제공세로 주도권을 잡고자 한것이다.

한데 白44의 감수가 터졌을때 선뜻 두어치운 黑45는 경솔했다. 결과적으로는 黑과 白이 各生으로 낙착했으나 이 과정에서 黑33, 39두점을 잃은 만큼 大損이다.

右上白의 死活문제



「黑45는 억울하더라도 참고도처럼 黑1이하 11로 각생해야되었다」는 趙8단. 하기야 鄭4단은 상변을 黑55로 살면 우측白은 自然死라고 판단한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 묘수풀이 「白先活과여하」와 같은 형이 생겨났다. 【一凡】

美골프選手 中共에

첫골프場 設計 맡으러

【오를란도(美플로리다州)31日AP=聯】 美國의 국제적 프로골퍼 아놀드·파머 선수는 31일 中共최초의 골프장 건설설계문제를 논의하기위해 금주중 中共을 방문할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1주일간의 금주여행을 떠나기 전 오를란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이번 상담이 성공할경우 그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매니지먼트·그룹회사가 中共廣州시 근처에 18홀규모의 골프장설계와 공사감독을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榮昌씨 우승

美 아마골프大會

【올랜도 스프링스31日AP=聯】 한국의 金榮昌씨는 31일 끝난 제22회 아마추어 시니어·골프선수권대회서 美國의 레드·호전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在日동포인 金榮昌씨는 호주의 재크·바캐이 65년 우승한이래 외국인으로서는 두번째로 우승했다.

김영수 17位차지

체코 世界사이클

【브르노(체코)31日AP=聯】 한국의 金영수는 31일 체코의 브르노에서 열린 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 남자1㎞속도경기에서 1분9초88로 17위를 차지했다.

이 종목에서 東獨의 로타르·톰스가 1분5초8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1회 平壤국제卓球

10국出戰 30일開幕

【서울=聯】 제1회 平壤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가 지난 30일 平壤에서 개막돼 北韓은 첫날 男女단체전에서 2승1패를 기록했다고 北傀의 중앙放送이 31일 보도했다.

北韓 1·2組를 비롯, 루마니아·불가리아·中共·印度·日本·헝가리·체코·폴란드등 10개국선수단이 출전한 이 대회의 첫날 남자단체전경기에서 北韓은 1조가 日本에 2-5로 패한반면 2조가 체코에 5-2승을 거두었으며 이어 벌어진 여

日, 오픈卓球창설

내년초에 東京서

日本오픈국제탁구선수권대회가 내년에 창설될 전망이다.

31일 自由中國과 日本을 방문하고 귀국한 金慶泰탁구협회부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제2회 서울오픈국제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내년 3·4월께 東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韓國과 쌍벽을 이룰것같다』고 밝혔다.

金부회장은 또 『韓國팀의 초청여부에 대해서는 日本탁구협회 오기무라전무로부터 국제탁구연맹(ITTF) 회원국이면 참가할수있다는 막연한 대답만을 들었을뿐 확실한 언질을 받지못했다』고 전했다.

漢陽大 럭비팀

내년초에 創團

야구와 축구등에서 대학정상급으로 발돋움한 漢陽大가 럭비팀을 창단키로했다.

漢陽大의 한관계자는 1일 내년3월까지 럭비팀을 창단키위해 국가대표선수를 지낸 李圭春씨(30)를 코치로 선임, 선수스카웃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재 럭비협회에 등록된대학팀은 慶熙大·高麗大·檀國大·釜山大·延世大·嶺南大·仁川體大등 7개팀이다.

스포츠話題

美洲 韓人체육교 水泳팀

國校部 남優勝 여準優勝

월등한 實力…峨山旗대회 빛내

◇제1회 峨山旗쟁탈 수영대회에 참가한 美洲 한인체육학교팀 선수들.

제1회 峨山旗쟁탈 전국수영대회에 처음출전한 美洲한인체육학교팀은 남자국민학교부서 단체우승을 차지하고, 여자국민학교부서는 준우승을 차지, 국내수영계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한인체육학교 출전선수는 金大煥코치를 비롯해 여자7명, 남자10명. 로스앤젤레스지역에 거주하는 在美동포 2세들인 이들은 국내 국민학교선수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이들가운데 김상백은 남자자유형 4백m서 5분12초로 우승했고, 2백m서도 2분45초로 우승했다. 그리고 김현수는 접영 2백m를 석권했고, 남자혼계영 4백m, 4백m, 여자계영 4백m 등 계주 부문서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여국배영 1백m와 2백m서는 김상희가 1분18초36, 2분46초86으로 각각 우승, 在美선수들이 거둔 우승종목만도 8개종목에 이르고있다. 여자국부서는 大成국교에 아깝게 1점차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전종목에 출전했으면 선수들이 우승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金大煥코치는 아쉬워했다.

교포선수들은 수영강국인 美國에서 훈련을 받아 국내선수들보다 기술이 최…

…는 유명 실내수영장을 찾아 훈련하고 있다. 훈련과함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영양식. 金大煥코치는 선수들의 건대선을 매일 체크하고, 체력을 영양식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대표코치를 역임한바있는 金大煥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2세 수영교육에 온 정열을 쏟고있는데 자신의 경험에다 美國서 개발되는 최신기술을 익혀 선수들을 지도, 선수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커다란호응을 받고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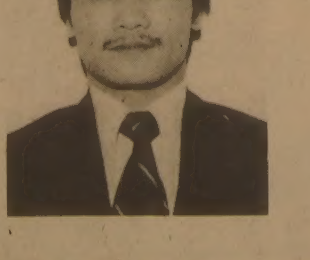
金코치는 선수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고 국내선수들과 겨루기위해 매년 아산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국내 국민학교선수가운데 1~2명을 美國에 유학시켜 육성하겠다고 희망했다. 【曺】

태권도 跆拳道

ONTARIO OPEN TAEKWON-DO! TOURNAMENT

SON MYUNG SOO TAEKWON-DO

때 : 1981년9월26일
장소 : UNIVERSITY OF TORONTO
(SPORTS GYMNASIUM)
55 HARBORD ST.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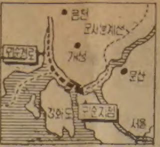


DYNAMIC DEMONSTRATIONS

2190D BLOOR ST. W., TORONTO.
TEL. 763-1155~6

PRESENTED BY
SON BROS.
TAEKWON-DO
CENTRE

30代 北韓주민 1명 歸順



30대 북한주민1명이 지난 31일 하오1시께 臨津江을건너 귀순해왔다.

1일 국방부발표에 의하면 귀순자는 黃海南道 安岳郡 燃谷里7班에 주소를둔 裵丙冠씨(32). 裵씨는어날 폭우로 臨津江물이 불어난것을 틈타 플래스틱 물통을타고 臨津江을 도하, 江華 동북방4㎞지점의 아군초소로 귀순해왔다는 것이다.

裵씨는 평소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억압된 생활과 차별대우를 받는 북괴사회체제에 환멸을느끼고 자유대한을 동경해 오다가 이번 臨津江의 범람과 시계불량을 틈타 탈출했다고 귀순동기를 밝혔다.

裵씨는 지난70년이후 17번째 귀순자가 된다.

◇臨津江을 헤엄쳐 귀순해온 裵丙冠씨.

美貨숨겨 出國기도 會社代表 1명입건

金浦세관은 1일 수화물속에 미화4만달러를 숨겨미국으로 출국하려던 회사대표 趙昌錫씨(60·S모방사장)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경찰에 넘겼다.

세관에 의하면 趙씨는 지난달 30일하오 과자통속에 달러를 담은후 짐속에 챙겨 나가다 X레이검사에 걸렸다는것.

또 金浦세관은 지난28일에도 사업자금으로 일화1천만엔을 짐속에 숨겨 나가던 鄭薰씨(73·정화에너지대표)를 적발한 바 있다.

釜山 南港洞해일

▲1일상오까지 높은 파도가 부산시影島區南港洞일대 방파제에 넘쳐 南港洞3가해안일대 5백여가구의 주택과 40여개 공장들이 바닷물에 잠수돼 대피소동을벌이고있다.

특히 南港洞3가 12통·23통·26통일대에위치한 대동조선소 제2공장, 남양어망등 40여개공장들은 방파제를 넘어온 바닷물이 공장으로 들어오는바람에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각종자재를 안전지역으로 옮기고있다.

또 影島區南港洞3街23통1반 金진길씨(40)등 5백가구에는 바닷물이 안방까지 들어와 각종 가재도구가 물에 떠다니고있으며 이일대의 차량통행이 중단되고있다.

바닷물에 침수된 南港洞3가 일대는 해안을 따라 높이 4m의 방파제가 축조돼있으나 이번 태풍으로 5~6m의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 이같은 소동을 빚었다.

한편 影島구청은 소방차와 민방위대원을 긴급동원,이날 새벽부터 수로개설작업을 펴는 한편 대평국교 강당에 이재민임시대피소를 설치,침수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있다.

洪文和박사 停年

우리나라 書誌學박사1호인 大河 洪文和박사(65·대한출판문화협회장·사진)가 31일정년 반세기동안 후학을 가르쳐 온 서울대학을 떠났다. 洪박사는 37년 京城藥專을 나와 조수로 약학계에 발을들여 놓은지 꼭44년5개월만에 만기 제대를한셈. 洪박사는 이날 『그동안 보살펴 주신 각계 여러분께 감사하며 더좋은 약을 만들어 사회에 보답하지 못한채일단 퇴직하게되어 송구스러울뿐』이라고 퇴임 인사를 했다.

태풍피해입은 地域 中·高生공납금면제

문교부는 1일 이번태풍으로 피해를입은 지역의 중·고교학생들에게 4/4분기 공납금을 면제해 주기로했다.

문교부는 3천평미만의 농가중 50%이상의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의 학생들에게는 공납금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가옥파괴 또는 유실된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피해상황이 집계되는대로 그정도에 따라 공납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태풍이 접근하고있는 1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곳곳에서 도로유실,산사태, 어선실종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이 엉터리 물건을 치워 버려야겠어"

"매일 아침 여기서 맨먼저 이걸 봐야 하는건 참을수 없단말이야"

"당신 지금 무슨얘기 하시는거죠?"

"거울 말이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㊱

〈聖李·尹 致 暎〉

興業俱樂部사건

李박사와連絡 獨立운동하던 國內모임
38年 갑자기署에연행 50여同志와苦楚

귀국후 日帝의 감시속에 YMCA부총무일을 맡는동안 국내 지도급인사들과 交流하며 어떻게하면민중을 깨우칠수 있을까를궁리했다.

소위 이땅의 지도급인사들에대한 저들의 감시는 날로 심했고 드디어 興業俱樂部사건으로 나는 악독한곤욕을 치르게되었다. 이사건은 한마디로 日帝가 한국의 지도급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뿌리를 뽑으려고 저지른 사건이었다.

興業俱樂部는 3·1운동직후에李商在 尹致昊씨등이중심이되어 전국의 지식인 목사 교육자등 5백여명으로 구성됐다. 겉으로는 민중계몽과 物産장려를 표방했으나 내심은 李承晩박사가 이끄는 在美同志會와 연락, 기독교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힘을모으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는데 참목적이 있었다.

日帝는 이구락부 회장인 佐翁尹致昊씨를 눈의가시처럼 알고 심한 경계의 눈으로 그를 감시했다. 내가 귀국한 뒤에는 국내에서 민족지도자로 상록을 이루던 月南(李商在)선생이 돌아가시고 佐翁이 우뚝한 支柱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는 佐翁을 맘대로하지 못했다. 그를 다치게하면 전면적 탄압의 상징으로 인식돼 한민족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는데다 佐翁을 지지하는 일본내 진보파 지식인들의 눈총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興業俱의 본부가 YMCA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여론이 두려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국내의 상황은 日帝가 마음먹은대로 탄압을 감행하던 시기였다. 내가 귀국할 무렵엔 「조선思想犯保護觀察令」이란 것이 내려 抗日운동가들은 要視察人으로 밤낮감시를 받고있었다.

日帝는 중국본토의 침략을 개시한 1937년들어 강제同化政策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天皇에대한 강제충성의 방침으로「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직장 학교 또는 집회등에서 낭독케했다. 또 국민정신총동원이란 명목아래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1938년, 日帝는 朝鮮語 교육廢止令까지 내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사용을 강요했다. 또 이해에 朝鮮思想報國聯盟을 만들어 사상운동의 前歷者들을 집단적으로 감시했다. 日帝의 목표는 소위「不逞鮮人」의 씨를 말리려한 것이다.

36년 東亞日報의 日章旗말소사건으로 東亞가 무기정간당한뒤 이듬해엔 修養同友會사건이 터졌고 이어 靑丘구락부사건이 터져 민족주의인사들이 검거되었다.

결국 내게도 올것이 오고말았다. 귀국 다음해인 1938년3월초순께였다. 이해 내나이 40세였다.

어느날 마 점심을먹고 YMCA에 들어오는데 낯선사람 2명이 날 불렀다니 『알아볼게 있으니 같이좀 가자』고 했다. 西大門경찰서형사라고 했다. 그중1명은 安國洞집을 수색을 했던 모양이다. 미리 가택수색을 했던 모양이다. 뒤에 알았지만 그들은 내집을 온통 다뒤져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내 아내는 死色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귀국할때 국제법, 외교관계서적 1천여권을 입수해왔는데 일본형사들은 그 책더미에도 의혹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西大門署로 연행한뒤 그들은 다짜고짜『李承晩의 密命을 띠고온게 뭐냐』며『순순히 자백하라』고 을러댔다.

◇1938년의 興業俱樂部사건은 日帝가 이땅의 지도급인사들을 탄압하기위해 일으킨것이다. 사진은 당시 서울 시청거리의 모습.

라』고 협박했다. 또 하와이 생활부터 美洲에서의 활동상황을 모두 대라고 했다. 同志會, 기독학원, 歐美위원부 얘기를 끄집어내며 한일을 일체 자백하라고 했고 上海 임시정부와의 연관계도 캐물었다.

나는 끝내 『모르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형사들은 고문을가하기 시작했다. 나중엔 책더미에서 찾아낸 李박사하고 나하고찍은 사진을 보이더니 『이게 누구냐』고 했다. 『모르겠다』고 잡아떼니 『이러지 말라. 李承晩이 아니냐』며 고함을 질렀다.

日警은 興業俱樂部 간사장인 나를 首魁로 지목했는지 1차로 잡아들이고는 俱樂部간부들 50여명을 속속 체포했다. 당시 惡名높던 京畿道 경찰부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기위해 北村고등과장 지휘아래 나를 포함한 興業俱 인사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활동에 대해 끈질기게 묻다가 결국 대답을 안하자, 구락부의 활동과 內幕을 대라면서 명단을 내밀었다. 명단엔 회장인 尹致昊씨이름다음에 내이름이 올라있고 작고한 李商在선생, 金一善장로, 33인인 吳華英목사, 申興雨, 7, 8명의 목사, 宋鎭禹, 玄相允, 金性洙, 白寬洙, 崔斗善, 安在鴻, 俞億兼, 金俊淵등 60, 70여명의 이름이 있었다.

이들중 西大門서엔 나와함께 俞億兼, 具滋玉, 李寬求, 朴勝鳳, 安在鴻, 鄭春洙, 吳華英, 崔斗善, 李甲成, 咸台永(前공보처장)등 50여명이 연행됐다. 그들은 전국에 관련자가 5백여명이라고 을러댔다.

張吉山 (163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一部 逆謀 四章 彌勒 (99)

여환은 옥여를 남겨두고일어났다.

『와선(臥禪)이나 하게』

그러나 옥여는 제 머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번뇌 때문에 수마(睡魔)가 싹 가버렸는걸. 자네 법이 옳은 모양일세』

여환은 이어서 풍열 대사를 뵈러 달마암으로 올라갔다. 풍열은 어슴프레한 바명 가운데 행선 중인지 암자 앞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오늘 가렵니다』

여환이 합장 배례를 올렸고 풍열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음, 내가 할말이 있다. 잠간 들어가자』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여환이 먼저 말하였다.

『이번에 사성골 무당 부부도 함께 가기로 하였읍니다』

『계화 말인가?』

『예, 원향이는 구월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여…』

풍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 거사의 내용을 알고있느냐?』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요』

『미리 알려서는 안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를 말은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오진암에서 있었던 모임은 속으로 꼭 삼켜 씹어 넘겨야만 한다는 얘기다』

『명심하겠읍니다』

『오서방에게도 그런 주의를 주도록 일러두었다만, 나중에 연계를 할 때에도 절대 외 제원들이나 미륵당에 끼인 사람들에게도 절대 함구 하여라. 이 모든일은 내게 달렸느니라』

여환은 고개를 숙이고 잠간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다.

『제가 일을 그르쳐서 잡힐 경우에는 몸이 이기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제부터 소승에게는 이쪽의 소상한 일의 진행을 알리지 마옵소서』

『알겠다. 매달 사(朔)마다 양주로 사람이 갈것이니 그 편에 소식을 전하고 받고 하여라』

여환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승(師僧) 풍열을 향하여 세번절하였다. 풍열은 합장으로 마주 예를 차렸다.

『편안 하옵소서』

『평등한 도가 널리 퍼지고 아름다운 생활이 시행되는 도솔천에서 만나기를』

여환이 문을 뒤로 닫고 나섰을때까지 풍열은 그린듯이 앉아 있었다. 벌써 일어나 살림살이를 시작한 심산의 날짐승들이 재빠르게 알수 없는 울음을 주고받으며 제각위를 어지러이 날아 다녔다. 산아래로는 안개가 차츰 걷혀 가는중이었고 빛져떠오르는 햇살이 아직은 붉으레 하였다.

여환이 월정사에 내려가니 계화 부부는 이른 공양도 끝내고 길양식도 마련하는등 대강의 행장을 차려 두고 있었다. 계화는 새로운 고장으로 떠나는것이 불안한 가운데도 기쁜 모양이었다.

『에이그, 섭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겠지만, 만신이란 제터전을 떠나면 손님받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우리는 그저 스님의법력만 믿겠우』

그들이 드디어 월정사를 나서는데 옥여와 오계손이와 원향이며 살림하는 젊은 보살 둘이 따라왔다. 옥여는 여환과 나란히 걸으며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큰 스님 잘 모시게』

여환이 당부하였으나 옥여는 묵묵히 먼산만 바라보는 듯 하였다.

流星의 賦 <17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茶花自紅 ㉓

이영의 말이 계속되었다.

『지금 조정의 형편을 살펴보라. 율곡이 천거한 인물을 대부분이 율곡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김우옹이 그렇고, 허모, 김모, 정모하고 헤아리면 십지(十指)에 넘는다. 사람을 볼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독선(獨善) 때문인 것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 아니면 일이 안된다는 자신(自信)이 남을 판단하는 눈을 흐리게한 때문이다. 율곡은 퇴계선생이 이준경을 천거했다고 해서 그것을 퇴계의 험으로 잡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선 율곡이 퇴계를 따르지 못한다. 내 자네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존경과 과신(過信)은 다르다고 하고 싶은 때문이다. 존경과 과신이 되어 그분이 한일이 모두 옳다고 추종하다가 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도되는 것이니라』

계남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다 이영의 말이 옳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한편에 돋아나고있었다. 계남은 이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밖에 없었다. 생각할수록 정여립을 천거한 따위의 행동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고증(考證)할 순 없지만 이런 일화(逸話)가 있다. 퇴계선생이 일시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삼복 더위가 누실하여 퇴계선생은 내당으로 들어가 등지고리 바람으로 뒷마루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제자의 하나가 들어와 『정여립이란 젊은 선비가 찾아와 선생님을 뵙고자 한다』고 전했다. 『어떤 모습이 더냐』고 퇴계가 묻자, 『이 더위인데도 의관을 정제하기가 빈틈이 없는 선비이온데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나오시길 기다리고 있읍니다』라고 했다. 『그럼 좀 기다리게 해두라』고 이르고 퇴계는 나가지 않았다. 반각(半刻)이 지나자 제자가 또 들어왔다. 『선비는 한시간을 미동도 하지 않고, 아까 그대로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니 민망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래?』 하곤 『좀 더 기다리게 해두란』고 일렀다. 다시 반각이 지나 제자가 들어왔다.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자 퇴계는 『나가서 내가 만날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하란』며 나가질 않았다. 여립은 면회를 거절당하자 축담으로 내려서면서부터 악담을 퍼부었다. 그리곤 『선비대접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예교(禮敎)를 가르친단 말인가. 퇴계의 인품, 이제사 알았다』는 말을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제자들은 그때사 정여립이 그런 인간이란것을 간파하고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퇴계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얘긴데 이엔 후담(後談)이 있다. 그후 제자들이 『왜 그때 여립을 만나주지 않았읍니까』하고 물었을 때 퇴계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 한더위에 의관속대하고 일각(두 시간)이나 꿇어 앉았는데 빈틈이 없었다고 하니 어찌 그것이 보통사람인가. 헌데 사람은 보통이래야 하느니라. 나는 그런 보통 아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여립의 역모는 퇴계가 죽고 훨씬 지난 뒤의 일이지만 그 역모사건이 나자 당시 도산서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일 그때 정여립의 소망대로 그를 퇴계문하에 두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으로서였다.

[illegible]의 生 <190>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 ㉒

『안 됐군. 아무 일도없이 그냥 도망쳐 버렸단 말요?』

나는 울면서 끄덕였다. J씨는 눈앞의 일을 묻고있는 데, 나는 그의 포괄적인 태도에 관해서 대답한것이다.

『그 친굴 그렇게 좋아하오?』

J씨가 다시 물었고, 나는 또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따위의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생각했다. 칠년 전의 실수와 관련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필생의 사업으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나는 다짐하듯 생각했다.

『그 친군 미스 안을 사랑하지 않는게 아뇨?』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부인도 있고 아이도있소』

『애인도 있어요』

나는 울음을 거두고 J씨의 말을 잘랐다.

『어젯밤 술집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거야 그냥 내 짐작일뿐이고…』

J씨가 어색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나는 그에게 노영지라는 여대생 애인도 한 명 있었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미스안은 내잠자리에서도 왜 똑같은 짓을 시작했지? 그건 이제 나를 좋아하기때문인가? 이건 내가 희망을 걸고 물어보는 사항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착각해서였어요. 절 좀 일어나게 해주시겠어요?』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그건 안 돼』

J씨가 내 가슴을 눌렀다. 조금 일으켜졌던 내 머리가 다시 베개 위에 떨어졌다. 하나 뿐이었던 베개를 J씨는 어느틈엔가 내 머리 밑에 받쳐준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그 친구가 한대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거야. 미스안이 일어나 나가든 내가 도망치든, 그건 마찬가지 아뇨?』

J씨는 미끄러지듯이 침대 속으로 들어왔다.

『안 돼요』라고, 나는 금시 내 가슴위에서 내뱉듯을 알아챘다 『안 돼요, 안 돼』라고 나는 다시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밀지 않았다. 그의열에 늦겠다고 생각했던 간밤에도 이런일이 일어나지된경우 나는 순종하게될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 J씨의 입에 확실하게 자물쇠를 채워두는 수단은 도리어 그를 육체로써 유혹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나는 했던것이다.

『안 돼요』라고 다시 말하려는 순간에 내 입술을 J씨의 입술이 덮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어 그의 입술을 피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뺨을 잡아 머리를 고정시켰다. 그의 혀가 다시 내 입술을 떠들었다. 어느 틈에 피어 버린 나리꽃처럼 나는 입술을 열었고, 그의 흡인력에 내맡겨 버렸다. 『안 돼요』라는 말이 이제는 내입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 입이 통째로 그의 어딘가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혼미가 왔다. 그가 이번에는 가슴으로 입을 가져갔다. 두 개의 가녀린 손과 함께 그는 끈질기게 내 가슴을 공격했다. 가슴에서 점차 아래로 옮겨지며 J씨의 애무는 더욱 깊고 심각해졌다. 수치감과 함께 내 피부는 그의 혀 끝에서 물고기처럼파닥거렸다. J씨는 옛날의 그처럼 성급하지도, 전통에서의 그처럼 사무적이지도 않았다. 혀끝 손끝에 맨소래담 따위의 연고를 바른듯 그의 애무에 의해서 나는 몸 전체로 화끈거렸다. 그러나 나는 애써서 그렇게 저절로 노는 혼미를 쫓아 버리곤 했다.

주간女性

『불필요한여행 自制하는 國民意識필요』
安世勳 旅券審査官

지난1일 海外旅行 대폭 확대와 여행제한 전면해제를 골자로 한 새旅券法이 발효됨에 따라 해외여행도 새로운 시대를 맞고있다.

새여권법의 뒷치다꺼리를 맡아온 旅券행정의 실무總責 安世勳 외무부여권심사관은 해외여행의 開放化시대를 맞아 국민들도 해외여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여행을 自制, 外貨를 절약할줄 아는 국민각자의 양식이 先決문제입니다』

開放化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의식부터 대뜸 말문을 연 安심사관은 이어 여행자유화가 시작된 지난 8월 한달동안 여권발급현황은 전년도同期對備 34.6%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새 여권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하루평균 1천2백장의 여권이 발급됐읍니다만 지금은 1천6백여장으로 늘어났어요』

―여행목적별로 볼때 발급이 눈에 띄게 늘어난 여권은?

『문화여권입니다. 단체회의 참석이나 語學研修를 위한 短期해외여행이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巡訪후부터 늘어난추세를 보입니다. 6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어학연수를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만해도 3천여명이 넘습니다』

―새여권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수 있는지…。

『정부가 국민을 일단 믿어보자는데 일차적인 취지가 있어요. 南北韓의 分斷과 外貨절약이라는 두가지 여건때문에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가급적 줄이자는것이 지금까지 여권행정의 골자가 아니었읍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發想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自覺과 良識을 신뢰, 개인의 성장발전에 비교하자면 의젓한「成人」으로 믿고 해외에 내보내도 무방하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취지와 배경이 여행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다고 보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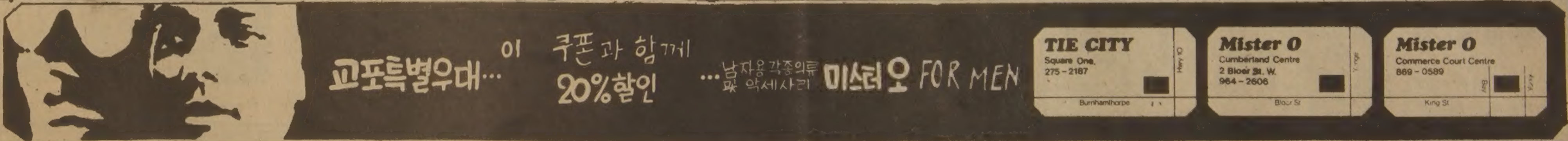
『過剩전달됐을 정도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만하면 여권이 나오는줄 알고있는분이 많아요. 예컨대, 방문여권의 경우 내년6월말까지는 해외친지의 초청범위를 3等親이내로 제한하고 있읍니다만 벌써부터 친구나 외국인의 초청장을 무턱대고 여권창구에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외국인의 초청장이 통용되는 것은 관광여행이 허용되는 83년 1월부터입니다. 관광여권도 마찬가지예요. 83년 1월부터 신청서를 내는분이 많거든요』

―갑작스런 여권신청 폭주에 대비, 여권課가 취하고있는 보완책은?

『접수창구에「즉석應答制」(Final Say)를 신설했읍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여부, 여행의 可否를 신청자에게 즉석에서 알려줄 수있도록 접수창구와 여권課長실 잇는 키폰(Key Phone)을 설치했읍니다. 또 여권과의 1층과 4층 사이를 수시로 오르내리는 書類컨베이어를 가동시켜 5분이 걸릴 서류이동을 20초남짓으로 단축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冷麵운반기같은거죠』(웃음)

海外여행의 自由化를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여행자유화취지를 분명히알고 양식에 따라 행동해야 할것이란게 安심사관의 거듭된 당부다. 【金勝雄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 사: 안 이 숙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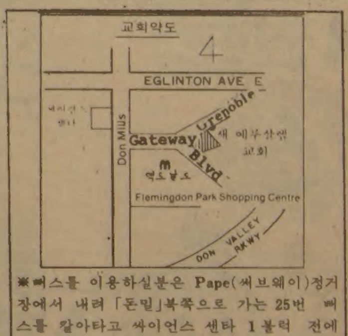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9월10일(목)오후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오후2시

※청소년을 위한 영어설교 12일(토) 오후1시

장 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파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이란 大統領·首相 사망

首相室서 소이탄爆發

4명死亡 15명負傷 최고國防協議會도중

임시大統領委서 國權장악

【런던31日UPI=聯合】모하마드·알리·라자이이란 대통령과 호자톨레슬람·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수상이 30일 수상집무실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탄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31일 보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런던에서 전했다。

테헤란방송의 이같은 보도는 대통령과 수상이 폭탄폭발사고의 중상자안에 포함돼 있다는 첫발표가 있은지 수시간만에 나온것이다。

테헤란방송은 첫 발표에서 이폭발사고로 4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으며 일부는 폭발에 뒤이은화재로 숨졌다고 전했었다。

베자드·나바비 정부대변인은 앞서가진 테헤란방송과의 회견에서 사고발생시 수상집무실에는 14내지15명의 인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테헤란방송은 대통령과 수상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이들은 第5列과 제국주의의 첩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들 두지도자의 장례식은 사망후 24시간이내에 거행하는 회교관습에따라 31일상오로 예정돼있다。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은 지난6월28일 수명의 각료와 아야톨라·베헤슈티대법원장등 74명의 목숨을 앗아간 회교공화당폭발사고직후 권좌에 올랐었다。

수상집무실폭발사고 1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던 한회교혁명수비군대원은 전화인터뷰에서『라자이 대통령이 들것에 실려나갔다』고 전했는데 런던의 더·타임즈지는 그가 양다리를 잃었었다고 보도했었다。

이란의 관영 파르스통신은 30일의 폭발사고로 중앙청사가 불에 탔으며 중요정부서류들을 끌어내기위해 보안군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날 수상집무실에서 폭발한것이 소이탄이었다고 밝혔다。

청취한 테헤란방송은 대통령과수상의 장례식이 31일중으로 거행될것이며 이란정부는 이들의 명복을 빌기위해 5일간의국조기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라자이 大統領

◇바호나르首相

◇라자이 이란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이 지난30일낮 폭발사고로 함께 사망한 테헤란中心街 수상집무실청사의 사고현장—。 【테헤란30日UPI電送=聯合】

國防相도 死亡說

【테헤란31日AP=聯合】30일 이란수상집무실에서 발생한 폭탄폭발사건으로 사망한 정부고위관리중에는 무사·나무국방상과 경찰국장 바히드·다스티게르디 대령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테헤란의 아자데간지가 31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했는지 혹은 부상자속에 포함돼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있다。

首相보좌관도 死亡

【앙카라31日UPI=聯合】이란수상실무실 폭파사건으로 모하마드·알리·라자이 대통령과 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수상외에 수상보좌관1명과 지나가던 행인1명등 도합4명이 사망했다고 관영 테헤란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알리·라자이 이란 대통령의 사망소식이 나온직후 임시 대통령위원회가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左翼무자헤딘 "우리들 所行"

【테헤란·베이루트30日AP·AFP=聯合】이란內閣은 사건직후 알리·아크바르·하셰미·라프산자니국회의장의 주재아래 국회의사당건물에서 긴급각의를 열고 사후대책에 관한『결정』을 채택했으며 이 폭발당시 首相실에서 대통령과 바호나르 수상이 라자이 정통한소식통들은、폭발사건이『미국고용인들의 최후발악적소행』인것으로 비난했다고 테헤란放送이 보도했다。

정통한소식통들은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 수상이 폭발당시 首相실에서 호메이니옹의 대표2명등과 함께 최고국방협의회를 개최중이었고 이와 같은 시각 수상실건물의 다른방에서는 나자리의장, 국방상, 3군참모의장, 혁명수비대장, 의회부의장, 회교지도자 아야톨라·

한편 이란의 左翼무자헤딘은 이란수상실폭파사건을 자신들이 일으켰다고 파리에서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무자헤딘을 지지하는 런던의 회교학생협의회 대변인은 AFP통신에 전화를걸고 무자헤딘이 파리에서발표한 이같은 코뮈니케를 전달했다。

어제葬禮거행

【테헤란31日AP=聯合】폭발사건으로 사망한 모하마드·알리·라자이 이란 대통령과 호

全대통령 災害대책本部방문

"태풍進路 수시로 豫告 對策만전"

被害 극소화하도록

全斗煥 대통령은 31일 상오 건설부에 마련된 중앙災害대책본부를 방문、尹錫吉 건설부水資源국장으로부터 약30분동안 전국의 降雨현황과 피해상황등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태풍애그니스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해 피해를 극소화하고 태풍의 進路를 시시각각으로 예고、대비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전국적으로 재해대책이비교적 잘돼 人命피해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것은 불행중 다행으로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해대책본부는 忠北의 沃川 報恩、忠南의 錦山 論山、全北의 完州、慶北의 聞慶 尙州 奉化가 가장 피해가 심했다고 보고했다。

"社會 깨끗해야 國力단합"

「3淸사업」有功者 65명을 표창

全斗煥 대통령은 31일하오 청와대영빈관에서 지난해 8월이후 사회淨化를위한 社會통일소득범조치에따라 단행된「3淸사업」有功者 1백67명가운데 65명을 전권、대통령표창을 수여한뒤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힘이 있어도 그힘을 단합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발전하지못한다는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하고『힘을 단합시키는데 가장중요한것은 공직기관을 비롯한 사회전체가 부패해서는 안되는 것이며、따라서 淨化운동은 모든분야에서 부조리를 벗어가는 각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徐廷和내무、周永福국방、權重東노동、金容烋총무처장관과 姜武新사회정화위원장등이 배석했다。

이날 대통령표창을받은 有功者들은 내무부의 吳長燮정주사(경북도內務局)등4명、국방부의 金允秀중령등 37명、노동부의 張彰煥주사(春川지방사무소)등2명、치안본부의 張德勳경사등22명 모두 65명이며 이밖에 1백2명의 유공자들이 소속부처장관을 통해 국무총리표창을받았다。

援護誠金 기탁業體 代表者 81명에만찬

全斗煥 대통령은 31일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鄭周永現代그룹회장、李健熙三星그룹부회장、具滋暻럭키그룹회장、崔鍾賢鮮京그룹회장、李興熙大宇그룹부회장등 援護誠金을 기탁해온 기업체대표 81명을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이자리에는 李種浩원호처장등이 배석했다。

聯合司 부사령관 朴魯榮중장 任命

정부는 31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朴魯榮육군중장을 임명했다。〈사진〉

◇약력▲충북堤川태생·51세▲美포트베닝보병학교졸▲육군대학졸▲국방대학원졸업▲육군대교관▲연대장▲사단장▲주월사령부참모장▲주미대사관 무관▲군단장

全대통령에 申告

全斗煥 대통령은 31일상오 청와대에서 朴魯榮신임 韓美聯合司부사령관으로부터 補職신고를 받았다。

大邱시내 하루2백6㎜…33년만에 最高기록

中南部에 豪雨 20명死亡·실종

이재민千百명 재산被害65億

8월의 마지막주말인 29·30일 이틀동안 충·남북、전북、경북등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에 천둥벼락을동반한 집중호우가쏟아져 사망14명 실종6명 부상24명등 모두44명의 인명피해와 65억여원의재산피해를 냈으며 이재민1천1백86명이 발생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31일 집중호우의 피해지역은 주로 경북 북부지방인 聞慶、尙州、奉化와 충북 내륙지방인 報恩 沃川、충남 錦山、論山、전북 完州지역으로 피해내용은 새마을시설·하천·도로·수리시설등 공공시설 피해가 6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농경지피해는 호남가 침수되고 3백37정보가유실·매몰되었으나 침수면적은 31일중에 물이 모두 빠질것으로보여 농작물피해는 적을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루동안 강우량으로는 지난48년이후 33년만에최고기록을 보인 大邱시내로2백3㎜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축대붕괴등으로 5명이 숨지고 평균1백38·6㎜가 내린 경북도내에서는 2명이 각각 숨졌고 3백15·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북沃川에서는 무너져내린 토사에 깔려 일가족 3명등 모두 4명이 압사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31일상오6시현재 집계한 수해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사망14명▲실종6명▲부상24명

◇재산피해(65억)▲가옥침수및 파손 9백42동▲선박파손 12척▲농경지 유실및매몰 1만1천3백15㏊▲교량13개소▲하천제방 2백3개소▲교실7개소▲수리시설3백26개소▲새마을시설 7백60개소▲사방조림 70개소▲철도 2개소 ★관련기사11면

颱風애그니스 北上

西海남부·南海서부에 주의보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에 위치한데다 서쪽으로부터 기압골이 접근、불안정상태에 있던 기층에 가속 상승효과를 일으켰기때문에 생긴것인데 大邱 群山 大田등지는 소나기구름이 발달、국지적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렸다는것。

관상대는 충청이남지방에 내렸던비가 31일부터 서울경기 강원지방까지 확산됐다가 밤늦게 1일까지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에따라 비가 내리다 2일부터 개겠다고예보했다。

한편 중앙관상대는 31일 태풍통보를 발표、제18호 태풍애그니스가 이날 상오9시현재 오끼나와 서북서쪽 2백80㎞해상(북위27·4도 동경124·7도)에서 매시20㎞로 북서진하고있는데 중심기압은 9백50밀리바 중심최대풍속은 45m라고 밝히고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서해남부및 남해서부해상에는 태풍주의보(폭풍20~25m 파고4~6m)를 내렸다。

관상대에 의하면 애그니스의 진로는 북위30도를 넘어서는 1일아침에 가서야 뚜렷해져 그때쯤 우리나라에 영향을미칠지 여부를 알수있겠다는것이다。

韓日양국 不和심각

【워싱턴30日=聯合】일본의대규모 對韓경제협력요청거부는 韓日양국간 심각한불화를 야기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30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날 서울발기사에서 한국이 경제지원과 안보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일본외교에 역습을 가했다고 말하고 군사문제에대한 레이건美대통령의 강경입장이 한국으로 하여금 이러한새로운 태도를 위하게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국민총생산(GNP)의 6%를 국방비에지출하고있는반면 경제규모가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일본은 GNP의 0·9%만을 군사비에 지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안보지원에 연루된 관약을 꺼리고있다고 이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은 9월10·11일 열리는 韓日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타협안을 들고나올것으로 보이나 한국의기대에는 훨씬못미칠것이라고 이신문은 말했다。

당초 금년말열린 예정이던 韓日 정상회담은 지연시킬것이 분명하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白仁燁씨 징역3년 執猶4년

서울형사지법합소1부(재판관 許正勳부장판사)는 31일 학교공금 7억5천여만원을 횡령한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善仁학원 설립자겸 재단상무이사 白仁燁피고인(59)에게 업무상 횡령죄등을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고 벌금6백만원을 병과했다。 白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5년 벌금6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北, 한국提議수락을

로요 파나마大統領

로요파나마 대통령은 28일『北韓은 全斗煥 대통령의 1·12및 6·5제의등 韓國정부의 평화통일노력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한것으로알려졌다。

로요 대통령은 한국의원친선사절단(단장 李泰九의원)의 예방을받고 韓半島정세에 깊은관심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사절단이 31일 국회에 보고해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꿈자리가 사납다고 말리던 부인의 말을 들었던들 좋을 수 시저는 칼을 맞아 죽지 않았을것이라고한다。 기원전 44·시저가 원로원에서 로마의 권문 때만해도 정장이 일진을 보는게 당연한 풍속이었다。 엄마전에 살해당한 오늘 머니가「높은 사람들」을 당 골로 하는 점장이노릇 해엄청난 돈을 모은 것도 고대 로마와 비슷한 풍속때문이다。▼정치인은 전통적으로 미신을 존중한다고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은 말하고있다。 이박에도 그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나、경기장에 나가는 스포츠맨이 그렇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은 모두가 한판 승부에 운명을 걸어야되는 직업인들이다。 말 을 빼어들고 맞서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야되는만큼 또한 꿈자리나「징조」에 혼을 리는 것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 이다。▼하지만 사람이 한판 승부의 영광을 노리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시계 바늘이 째깍하는 사이에 23만8천6백10원을 벌수있다면 누구나 한판 겨뤄볼만한 싸움이다。 멕시코에서 서울에 온 안토니오·아벨라라는 청년이 3백46초、그러니까 5분46초에 12만달러를 거머쥐었다。 우리 돈으로 쳐서 1초에 23만8천6백10원을 번 셈이다。▼프로복싱 WBC 플라이급 챔피언인 아벨라가 30일 저녁 도전자인 金泰式을 주먹으로 치고 1초에 거둬들인 23만8천6백10원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 23일동안 번는 돈에 해당한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만5천8백10원이니까 인들이 23일간 벌어야되는 돈을 아벨라는 1초에 번 것이다。▼한국 복싱의 호프요、젊은이들의 호프였던 金泰式이 무참하게도 쓰러졌다。 그것도 시세의 감정이 나되는 돈더미를 아벨라에게 안겨주고 5분46초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수영로 까지않은 金泰式의「비장한 각오」도 무색해진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몸이 굳어져「적절한 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일진이 나빠서였을까?▼「권투는 감미로운 과학」이라고 라이블링은 말했다。 복싱이 고도의 과학이 된것은 90년전 콜베트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타이틀을 5년동안이나 지키는데 성공하면서 부터였다 한다。「비장한 각오」로 링에 오르는건 그러니까 1백년전에나 있었던 일이다。 수도승보다도 엄한 절제와、경허한 과학자의 태도로 호프 金泰式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싶다。

오늘 停戰委본회의

유엔軍사령부는 8월31일 북괴의 SR71機 공격사건을 따지기위한 제407차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1일상오11시 板門店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테헤란시민들은 이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의사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市民들은 무리를지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애도의 날이다。 우리의「이맘」이 애도일에 우리와함께 있다』고 외쳤다。 그들은 수상집무실건물에 보안군들이 시민들이 화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경비에 임하고있다。

자톨레슬람·모하마드·바호나르수상의장례식이 31일하오3시30분(한국시간)거행된다。

社會漫評

금년엔「祈雨祭」를 많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4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잇단爆發테러… 首腦職 空白상태

두달만의 慘事…政局에충격

回教정부、反對세력 분쇄다짐

5일간 弔意、50일内에 再選擧

硝煙속에 싸인 이란政府

【테헤란31日AP=聯合】30일 발생한 라자이 이란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등을 사망케한 이란 폭탄테러사건은 이미 2개월전 회교공화당(IRP) 중앙당사 폭발사건에 뒤이은것이다。

라자이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불과30일、그리고 바호나르가 수상에 임명된지 불과 25일만에 암살당함으로써 회교정권 최고위자리에 공백이 생기게되었다。

대통령유고시에는 헌법에 따라 그 권한이 3人 임시대통령위원회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3人중 가운데 한사람인 바호나르도 사망했기때문에 이위원회는 호자톨레슬람·하셰미·라프산자니 국회의장과 무사비·아르데빌리 대법원장 2명이 맡게된다。

헌법에따라 이 임시 대통령위원회는 50일내 새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하며 이전에 그들이 할수있는 일은 새정부를 이끌어갈 신임수상을 임명하는일뿐이다。

대통령위원회는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들에게『회교혁명에 반대하는 적을 분쇄하기위해 인내심을 발휘해줄것』을 호소했다。

임시 대통령위원회는 또 모든 관리들과 특히 이라크와 전쟁중인 군인들에 대해『회교공화국을 강화하기위해 회교적 의무를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위원회는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의 장례식이 31일상오에 거행되며 이후 5일간의 조의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방송은 이같은 장례일정과 조의기간이 이란회교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이 승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5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낸것으로 공식발표된 이번 바호나르수상집무실 폭탄공격사건은 지난 6월29일 당시 회교정권제2인자인 모하메드·베헤슈티를 포함한 74명의 요인을 사망케한 회교공화당(IRP) 중앙당사 폭발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2개월만에 발생했다。

4명의 각료와 27명의의원을 사망케한 지난번 폭탄테러사건에 대해 당국은 그 주범이 IRP당원인 모하마르·레자·콜라히라고 밝혔는데 그는 아직 수배중에있다。

30일의 폭탄 테러는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이 다른 국방위원들과 회의중이던 방에서발생했으며폭탄은 두사람이 앉은자리로부터 바로 가까운 위치에서 폭발한것 같다。

그러나 수상집무실 일대는 지난7월 수상실 건물에서 약 2백m 떨어진곳에서승용차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한이후 삼엄한 경비하에있었다。

◇生存중인 라프산자니國會議長。

「살아있는 殉教者」추앙받아 알리·라자이 大統領

【테헤란31日AP=聯合】30일 하오 테헤란 중심부의 수상실건물에서 발생한 폭탄사고로 사망한 모하마드·알리·라자이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의 대통령선거에서 축출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의 뒤를잇는 제2대 이란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라자이수상은 그에앞서 80년 9월부터 바니·사드르 대통령정부에서 수상으로 재임했었다。

지난 33년 테헤란西部의 카스빈에서 태어난 라자이 대통령은 16세되던해 空軍에 입대했으나 그후 교사로서 삶의진로를 바꾸었다。

63년에는 메흐디·바자르간 前수상이 이끄는「이란해방운동」에 가담했던 그는 74년부터 78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팔레비前國王의 비밀경찰인 사바크에체포、2년동안 감옥생활을하기도했다。

라자이 대통령은 당시감옥생활도중 사바크의 고문을 받아 입은 몸의 상처들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란의「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아 왔다。

78년 감옥에서 풀려난 라자이 대통령은 다시 교단에 진출하고 回教교사연합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며 이란回教革命후 바자르간수상 정부에서 교육상으로 입각하기도 했다。

그는 80년총선에서 바니·사드르 대통령정부의 수상으로 입명되었고 바니·사드르 대통령실각후 지난 7월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다。

回教共창단멤버인神學者 자바드·바호나르首相

【테헤란31日AP=聯合】모하마드·알리·라자이 이란 대통령과 함께 사망한 모하마드·자바드·바호나르 수상은 지난달 5일 수상에 취임한 神學者。바호나르는 현 이란집권回教共和黨(IRP) 창당멤버로 지난6월28일 당본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른 주요인사 73명과 함께 사망한 아야톨라·모하마드·베헤스티 대법원장겸 IRP당수의 뒤를 이어 지난6월 IRP당수직에 선출되었다。이란남동부 케르만 출신의 1933年生인 故바호나르 수상은 팔레비전王朝에 저항、수차례 전국적인 파업을 주도하다 두번이나 투옥당하기도 했다。

故바호나르수상은回教혁명이 성공한후 혁명위원회 위원으로서 回教共和國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기도 했으며 라자이 수상정부에서 교육상을 역임했다。

자리굳힌「對정부牽制勢」

創設1주년맞은 波 自由勞組

◇폴란드의 自由노조창설 1주년 기념일을맞아 自由勞組기념비 제막식이 야스트르제비스광산촌에서 거행되고있다。【카토비체(波)30日UPI=聯合】

공산당 정부의 비난이 가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레흐·바웬사가 이끄는 폴란드 자유노조는 30일 그 결성 첫돌을 맞았다。작년 8월14일 그라니스크의 레닌조선소 폭동이 발단이 돼 그달 30일 공산정부의 허가로 결성된 자유노조는 지난 한해동안 폴란드정부에 무던히도 압력을 가했다。

소련군의 탱크가 금방이라도 국경을넘어들어 올것같은 숨가쁜 고비도 수없이많았으나 그같은 위험을 용케 넘기면서 자유노조는 폴란드근로자들의 대변자로 위치를잡는데 성공했다。

부패관료 추방캠페인으로 폴란드공산당정부로 하여금 수차례에걸친 숙정개각을 단행케했고 언론의자유를 요구할만큼 성장한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당초 자유노조결성은 식량부족에서 발단이 됐었다。그러나폴란드경제사정은그때보다 지금이 한층 더 어렵다。날이 새면 육류배급을 받기위한 줄서기경쟁이 시작된다。그것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각오를 하고서。

소련과 폴란드공산당은 경제사정의 악화가 자유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혼란에서 야기되고있다고反자유노조캠페인을 더해가고있다。그에반해『소련과 폴란드공산당이도리어경제질서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근로자들사이에 공공연하게 돌고있다。

정부측은 경제질서를 회복하려면 강력한통치가 필요하다는 열망이 대중속에서 살아나기를 기다린다。그렇게되면 자유노조운동은 저절로 바람빠진 풍선이 된다。

이같은 근거에서 워싱턴의 폴란드전문가들은 소련의 무력침공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관측한다。

서방측이 폴란드外債상환을 연장해주면서 육류원조를 늘림은 자유노조운동을 活性化시키기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일수있다。

자유노조는 지난 1년동안 이미 공산당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할만한 세력으로 성장됐다。

폴란드공산당원2백94만명중 30%가 자유노조원이다。당중앙위원 2백명중 40명、당중앙위후보위원 70명중 14명이 자유노조원이다。

이들은 1천만명의 자유노조、3백50만명의 自營농민 세력을 발판으로 공산당체제를 개혁하는 세력을 이루고있다。자유노조운동의 成敗는 결국 그결속력에 달려있다하겠다。

그렇기에 자유노조 지도부와 노조원이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우려되는 측면이다。

30일에 열린 자축행사에는 7백명의 초청인사중 겨우30명이 참석하여 행사는 쓸쓸했다。

바웬사마저『목이아프다』고 참석하지 않았던것이다。【崔相鎬기자】

食糧不足발단…言論自由요구까지 내놓을만큼 成長

「제2政府」구실、成敗는 結束力에

波자유노조 日誌

▲80년8월14일=그다니스크노동자총파업。

▲80년8월30일=폴란드 自由勞組결성。

▲9월6일=공산당제1서기 기에레크、노동자파업여파로 실각。후임에 스타니스와프·카니아 선출。

▲10월1일=로트항공사、최초로 합법적 자유노조등록。

▲10월29일=카니아黨제1서기 돌연 소련방문으로 蘇개입시사。

▲11월1일=최고법원、勞組측의 노조헌장 黨우위조항 삭제요구 인정。

▲11월19일=정부、反노조관리축출약속。

▲11월30일=蘇、바르샤바 조약기구국들의 폴란드 무력개입 가능성시사。

▲12월8일=카니아、소련군 4개사단의 폴란드進入공개。

▲12월23일=육류공급부족 항의소요 재연。자유노조、격주土曜휴무제거부。

▲81년1월11일=노동사태에 군대투입、노동자 무력해산。

▲1월31일=자유노조、국영방송에 자체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노조직영 TV·라디오를 보유할 권리를갖기로 정부와합의。

▲2월9일=핀코프스키수상、노조사태에 책임지고 전격사임。후임에 야루젤스키임명。

▲3월19일=폴란드경찰、비드고슈치市 농성장에 난입、노조지도자 구타。수명 부상하는 첫유혈사태 발생。

▲4월17일=농민노조 합법화。

▲5월5일=노조、언론매체이용권 획득。

▲6월7일=蘇、폴란드공산당에 반혁명지도자에 강경조치요구하는 경고서한발송。

▲7월18일=공산당 첫직접·비밀투표실시。카니아 제1서기 재선。

▲7월25일=자유노조「기아행진」。1천여명 단식시위。

▲7월30일=식량데모 확산、부녀자 1만여명 단식행진。

▲8월3일=바르샤바시민 대규모차량데모。

▲8월18일=전국적인 언론파업 돌입。

◇아라파트만나는 세이송佛外相 中東을순방중인 클로드·세이송프랑스외상(左)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야세르·아라파트가 30일 차피크·와잔 레바논수상(中)의 주선으로 와잔수상의 私邸에서 회담하기 직전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있다。【베이루트30日AP電送=聯合】

佛、PLO支持

세이송 外相、中東서밝혀

【베이루트30日AP=聯合】중동을순방중인클로드·세이송프랑스외상은 30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팔레스타인대표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이송외상은이날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과 레바논수상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프랑스·PLO관계를 비롯 중동사태전반을 논의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프랑스는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또한 서구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PLO가 팔레스타인의『대표자적역할』을 보유하고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한 팔레스타인 인들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계속 머물러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적인의미에서의 팔레스타인 대표권은 영토와 국가가 갖춰졌을때 팔레스타인에 의해 결정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美條件수락

早期警報機5臺 用途관련

【뉴욕30日AP=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5대의 용도에 관해 미국측이 제시한 4개조건을 은밀히 수락했다고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30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국의 4개조건은 美전문가들이 지상레이다기지에서 정보수집활동을 감시한다는것 등이다。

유태教會堂습격…21명死傷

팔레스타인系서 이、墺미온策 비난

【빈30日AP·UPI=聯合】팔레스타인계 테러단체에 소속한것으로 보이는 2명의 아랍인들이 29일 빈에 소재한 한유태인교회당을 습격한후 예배자들과 행인등에 수류탄을투척하고 권총을 난사하여 2명을 죽이고 다른 19명을 부상케했다。

이들 아랍인 2명은 한 유태인 소년의 13회생일축하예배가 끝나 하객들이 교회당을 떠나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교회당현관에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자동권총을 난사한후 도주、추적하는 경찰들과 행인들에게도 수류탄·권총공격을 퍼부었다。

범인들은 유태인교회에서 2개블록을 지난 지점에서 25세된 한 여인과 68세된 한노인등 행인2명을 사살하는등 난동을 계속했으나 권총을 휴대하고 있던 한 행인이 쏜 탄환에 그중 1명은부상、체포됐으며 다른 1명도 도주를 계속하다가 생포됐다고 오스트리아경찰은 발표했다。

경찰은 체포된 아랍인2명중 부상한 쪽은 이라크 국적의 후삼·모하메드·라지(21)로 그리고 다른 1명은 이집트국적의 알리·유수프(30)로 각기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이들 2명의범인중 1명은 자신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한 이탈단체인 알·아시파소속 행동대원이라고 소속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모기관으로부터 서한으로 접선통보를받고 이날 공격개시 불과 수분전에 유태인교회당앞에서 처음 만났음을 경찰진술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79년이래 빈에서 거주해온 라지씨의 빈아파트에서 PLO旗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의 사진 PLO관련기사 스크랩등을 발견했다고 전하면서 이들범인이 PLO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석했다。

경찰은 이와함께사건후라지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1명을포함、6명의 빈거주 팔레스타인 인들의신병을 확보하고 이번 테러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알·아시파는 지난 70년대초 PLO에서 이탈을 선언한 강경파지도자 사브리·알·반나씨에의해 주도되는 행동단체로 알려지고있는데 이단체는 최근 브루노·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수상이 PLO와 이스라엘간의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그를 암살할것임을 공개적으로 위협한바 있다。

한편 PLO는 이날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PLO는 이사건을 저주한다』고 강조하고 PLO가『세계 모든종교의 예배당을 존경하고있다는점을 재확인해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정부는 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 수상이 PLO게릴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왔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테러를 조장한격이 됐다고 비난했다。

【빈30日UPI=聯合】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首相은 30일 2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를낸번 팔레스타인解放機構(PLO)의 유태교회당습격사건이 오스트리아정부의 미온적인 對PLO정책탓이라는 이스라엘의 비난을 일축했다。

앙골라 9개市失陷

南阿共軍、侵攻작전 계속

【루안다30日UPI·AP=聯合】앙골라정부는 30일 앙골라남부 쿠네네省都가 지난24일 앙골라남부를 침공한 남아공화국군에게 함락되었으며 남부지역의 요충 루방고시를 잇는도로상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앙골라국방성은 이날 전황발표를통해 앙골라 남부에서 1주일째 침공작전을 펴고있는 남아공군이 지난28일 그들의 전투기3대가 격추되는 격렬한 전투끝에 앙골라영내 30㎞의 쿠네네省都 엔지바지를 점령했다고 밝혔다。

국방성 코뮈니케는 또 남아공군이 앙골라 영내에서의 작전완료에 따라 철수하고있다는 남아공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앙골라 남부지역의 행정및 교통중심지이자 후일라省都 루방고로 이어지는 도로상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앙골라 국방성발표는 이에 따라 南阿共軍에 함락된 앙골라 도시가 엔지바市를 비롯하여 엑산공고 몽구아 홈베 쿠아마토 안하카 무코페에발렌및 무파등 모두 9개가 된다고 밝혔다。

佛、南阿共침략규탄

【유엔본부29日AP·AFP=聯合】프랑스는 29일 앙골라사태를 논의하고있는 유엔安保理에서 美國과는 달리 南阿共의 앙골라침략을 강력히 비난하는 安保理決議案을 채택해야한다고 밝힘으로써 西方側의결속에 혼선을 빚었다。

자크·레프레트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는 프랑스정부가『가능한한 가장 강경한 톤으로 南阿共의 앙골라에대한 부당한 침략을 규탄할것』이라고 말했으나 아프리카黑人국가와 소련및 제3세계가 요구하고있는 對南阿共 경제·정치적 제재조치에 관해서는 반대의입장을 분명히 했다。

레프레트대사는 南阿共이 西南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게릴라들에 대한 자위조치로 앙골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한것은『전혀 타당한 근거를 갖고있지않다』고 비난했다。

레프레트대사는 앙골라사태의 궁극적인해결이 西方側이 제시한 독립案을 받아들일때 가능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골라 쿠바軍철수 나미비아 해결連繫

크로커美次官補

【워싱턴31日AP=聯合】미국은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문제와 앙골라주둔 쿠바軍의철수문제를 연계시키는 해결안을 검토중이라고 체스터·크로커 미국무성 아프리카문제담당차관보가 밝혔다。

크로커차관보는 29일 호놀룰루에서 행한 연설에서『나미비아문제의 해결움직임은 쿠바군의 철수문제를 촉진시킬수있으며 그반대의 현상도 생각할수있다』고 말하고『이두분야에관한 움직임이 병행함으로써만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낳을수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원문은 국무성에의해 30일 워싱턴에서 배포되었다。

海外토픽

生後두달아기 놓쳐

★나이애가라서 현기증

카나다의 터론토에사는 듀니아·사예그(28)라는 여인은 나이애가라폭포를 구경하던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통에 안고있던 생후2개월된 갓난아기를 그만 놓쳐 나이애가라폭포에 빠뜨렸다。

사예그여인은 경찰진술에서 폭포를 내려다본 순간 현기증과함께 손발무력증이 생겨 아기를 놓쳤다고말했는데 한경찰관은 사예그여인이 의식을 잃고있지는 않았다고전언。

이제까지 나이애가라 폭포에 떨어져 살아남은 케이스는 지난60년7월19일 로저·우드워드라는 7세소년 뿐인데 그는 당시 구명대를 부착하고있었다。

사예그여인의 2개월된 아기의 시체는 3일 이상 걸려야 찾아질듯。【나이애가라(캐나다)=AP】

오늘의 小史 <1일>

▲關東大地震 발생	(1923)
▲日帝, 朝鮮語과목 폐지	(1937)
▲獨軍, 폴란드 진격, 2차세계대전 개시	(1939)
▲學制, 6·4制로 변경	(1946)
▲美·濠·뉴질랜드 안보조약 조인	(1951)
▲철도청 발족	(1963)
▲이스라엘 이집트간 시나이격리협정 가조인	(1975)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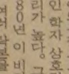
광개토대왕 碑

중공 당국은 중국 집안현 통구에 있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앞으로 1、2년안으로 외국인에게 공개하게 될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전하는바로는 광개토왕의 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중공관계자들은 조사、연구、주변정지、호텔건축등의 작업을 서두르고있다니 이 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어떤것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수가 있다。

서기3백91년에서 4백13년까지의 23년간 재위하면서 고구려의 국력을 크게 떨치게 했던 왕의 정식 묘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광개토대왕은 그약칭이오 이름은 담덕(談德)이며 고국양왕의 아들이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장수왕 2년 즉 서기 414년으로 네모기둥 응회암자연석으로 된 높이 약6·27m의 거비에 고구려、신라、가야의 3국이 연합하여 왜군과 싸운 일과 왕의 일대기를 1천8백여자로 적고있다。



특히 비석의 서체는 전한의 예서에 속하는 글씨로서 우리의 금석문으로는 가장 거대할뿐아니라 귀중한것의 하나요 문헌이 드문 고대사의 해명을 위한 결정적인 사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자 이 비석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것은 일본군부가 고대일본의 한반도진출이라는 역사적인 허구를 조작하기 위해 이 비석의 문귀를 개각했다는 설이 나돌고 부터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학자사이의논쟁으로 머물지않고 일본인 학자 상호간에도 시비의 소리가 높다。그러나 모두가 1880년 이 비가 발견된 다음의 여러 탁본을 두고 서로 옳다고 우기는일이니 그 학문적 논쟁이야 말로 2차자료만을 이용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결정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만약 보도대로 중공당국이 광개토대왕의 비를 공개한다면 우리 국내 관계자들도 직접 확인의 기회를 갖게 될수 있을 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역사적인 사실의 규명을 위한 우리의 관심은 크고 선인들이 남긴 값으로 치기 어려운 문화재의 보호실태에 대한 눈길도 소홀할수 없겠다。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초 대 장

본교회에서는 창립 제14주년 기념예배 시간에 아래와 같이 장로장립식을 거행코저·하오니 참석하시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9월13일(일) 오전11시

장 소 : 본 교회당 (1183 Davenport Rd.,)

장로취임 : 강 대 길

장립 : 김장환, 김정수, 김종태 나상선, 배형도, 여건동, 이대환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당회장 박 희 민

서 기 김 사 만

T. V. 선교방송 방영시간 변경공고

본교회에서 제작 방영하고 있는 T. V. 선교방송(생명의 말씀)방영시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통보 합니다

변경일시 : 9월13일(일)부터

매주일요일 : City T. V. 오전8시30분~9시(케이블7 채널79)

매주목요일 : M. T. V. 오후12시30분~13시(케이블4. 채널47) (재방송)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메스콤 선교위원회

위원장 홍 중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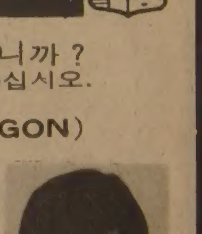
섭 외 이 대 환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나의 이력서 ㉟

〈題字·尹致暎〉 윤치영

13年만의 歸國

오랜 煩悶끝 被逮각오 37年 배에올라

日帝눈피하려 身分僞裝…不安한 생활

1931년 서울에서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왔다。당시 八旬에 이른 어머님은 내가 보고싶다면서 형님들에게 나를 귀국시킬것을 종용하셨다。그래서 형님들이 나를귀국시키기위해 아내를 보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귀국을 망설였다。아내가 온뒤에도 4、5년동안 귀국할 생각을 못했다。당시 국내상황은 日帝가 애국인사들의 씨를 말리려드는 暗黑期에 접어들고있지 않은가。

귀국하면 가혹한 탄압으로 아무일도 못할것같은 생각이 앞섰다。海外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귀국하기전1년간은 크게번민하다 결국 귀국을 결심했다。국민들과 同苦同樂하며 투쟁을 벌이기로 한것이다。체포될것을 미리 각오했다。李承晩박사하고는 국내에서 외교활동자금을 거둬보내기로 約을했다。그당시 워싱턴에서의 활동은 公館발행도 좌절되고해서 심한 資金難에 봉착해있었다。

생활도 궁핍했다。李박사의경우는 옷하나 제대로구해 입지 못해 외국인을 만날때면 1벌뿐인 낡은 모닝바지를 기워입고 양말까지 꿰매 신고다닐 정도였다。

1937년 6월。드디어 歸國船을 탔다。동지들과는 언제 만날지도 모를 기약없는 이별을 했다。조국을 떠난지 13년만이었다。배가 太平洋을 건너는동안 萬感이 오갔다。25세의 청년으로 조국을 떠나 38세의 壯年으로 귀국하는 감회는 실로착잡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내딴에는 李박사를 따라 나라의 主權회복을 위한 外交戰線에서 긴세월 從軍을 했다는생각이 들면서도 끝까지 부끄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主權잃은 나라의 국민으로 비참한 自愧心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흥분과 허탈감, 또 때로는 희망과 좌절감이 서로 뒤엉킨 가운데 屈曲深山의 迷路를 헤맨 느낌이다。

그러나 우린 자주독립이 없이는 일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철칙아래 李박사를 중심으로 고난을 이겨왔다。26년간에 걸친 李박사의 독립투쟁 歷歷중 나는 그 절반의 세월을 그와 같이 해온셈이다。

13년만에 돌아온 조국땅은 살벌했다。여름의 山河는 절망의 凍土였다。침략전쟁을 눈앞에둔 日帝의 총칼, 군화소리만 가득했다。돌아올 시기가 아니었다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이미 각오한 길이었다。내가 異國땅에서 공부하며 「독립外交」란 이름의 끝없는 流浪을 하고있을 때 이땅에선 日帝下에 얼마나 많은 無名의 애국동포들이 스러져갔는가。피로 얼룩진 암흑의 山河에서 나도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온 것이다。

서울에 돌아와 집안어른들에게 두루 인사를 드린후 추억어린 곳들을 둘러봤다。어릴때 정신 요람이었던 중앙학교와 YMCA도 둘러봤고 貞洞교회、그리고 시내를 신기한듯 둘러봤다。

떠날때보다는 건물도 새로 들어서고 거리도 깨끗해진듯싶으나 故國의 분위기는 무겁고 우울하기만 했다。날로 더해가는 日帝의 强壓통치로 국민들은 숨도 마음대로 쉬지못할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YMCA에 가니 그리운 月南 李商在선생의 모습이 보이지않았다。美洲에 있을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막상 건물에 들어서니 허전하게만 느껴졌다。月南선생이 가신후 致昊형님을중심으로 YMCA는 줄기차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귀국한뒤 부모님이 따로 마련해 놓은 서울종로구安國洞104번지로 들어갔다。老母는 마음이 안놓이는지 매일 安國洞8번지에서 내집을 오르내렸다。집안어른들과 주위에서는 日帝가 동태를 감시하고 있을테니 몸조심을 하라고 당부했다。

처음엔 오늘잡힐까 내일 잡힐까 勞心焦思하다가 나중엔 눈총을 피할 속셈으로 鑛山을 한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고 다니기도했다。또 못먹는 술을 먹는척 하면서 놀고있는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그러면서 한편 속으로는 『제발로 들어온 나를 저들이 다른 인물들 경우처럼 이용가치있는 「皇國臣民」으로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가졌다。

귀국한직후 孫基禎선수가 伯林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 침울해있던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孫선수는 비록 日本선수로 뛰었지만 우승, 나라없는 민족의 恨을 풀었다는점에서 국민들은 저마다 후련해했다。한국민의 歡喜를 탐탁히 않던 日帝는 결국 孫선수의 우승을 보도한 東亞의 日章旗 말살사건을 트집잡아 찬물을 끼얹었지만 국민들의 흥분과 감격은 좀처럼 지울수가 없었다。

앞서 얘기한대로 나는 귀국후 때 京城帝大교수로 교섭받아 그런대로 講壇에 선다는점에서 기대를 했으나 나의 美洲에서의 활동과 소위 朝鮮人이라는 점때문에 거부당한뒤 다시 失意에 빠졌다。

나를 추천했던 京城帝大의 하세가와(長谷川)교수는 훗날 미국에서 京城帝大내부의 치부를 신랄하게 폭로했다。

얼마뒤 나는 YMCA총무로 있는 具滋玉씨의 권유로 부총무의 일을 맡았다。

또 興業구락부의 간사직까지 맡았다。당시 YMCA는 尹致昊、李商在、金一善씨등을 중심으로 물산장려라는 명분을 내걸고는 은연중에 광복운동인 興業구락부활동을벌여오고 있었다。

◇日帝下 强壓통치로 暗鬱했던 1930년代의 서울 本町通(현忠武路) 거리의 모습。

國內外의 韓國學연구 關心높으나 內實없다

韓國學회、活性化위한 國際모임

국내외에서 관심이 늘어나고있는 韓國硏究의 실상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모임이 지난달26일부터29일까지 韓國學會(회장 李丙燾)주최로 釜山에서 열렸다。국내와 외국의 대표적인 한국학학자 16명이 참가한 이모임은 제법 붐을 이룬듯 하면서도 內實은 없는 한국학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한국학연구가 부딪치고있는 장애요인을 적나라하게 거론하는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

회의에서 李基白교수(西江大·한국사)는 한국학연구에있어 가장 큰문제점으로「官主導型의연구」와「史料의 빈곤」을 들었다。

李교수에 의하면 행정당국은 그들이 관장하는 학술기관을 통해서 한국학의 연구를 추진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따라서 한국학은 마치 이들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고있는데 이들 학술기관들의 사업은 때로 중복되고있으며 순수한 학문적인 활동이외의 분야에까지 손을 뻗고있다는 주장이다。

李교수는 한국학연구는 순수한 연구기관에의해 주도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官主導型 연구기관의 연구방향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사료의 빈곤문제에 대해 金石文과 古文書의부족현상을 지적했다。金石文은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아직껏 표준이 될만한 金石文集이없으며 古文書의 경우는 이렇다할 古文書集의 존재조차없어 그심각성은 이루말할수 없다는것이다。

◇와그너교수

◇이기백교수

李교수는 중요한 근본사료들을 이렇게 푸대접하고도 한국사를 제대로 연구할수있으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官主導연구 副作用많아
金石文·古文書등史料빈곤도 문제
國內

李교수는 한국사연구자체에대해서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한결같이 중요하지만 특히 社會史분야가 중요시된다고 밝히고 한국사에서와같이 社會史부문에대한 한국적연구가 행해지지못하고있는 경우에서는 그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역설했다。社會史부문가운데 특히 身分制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안고있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것。

財政지원없어 학생外面
장학금보조·출판사업장려 힘써야
國外

한편 와그너교수(하버드大)는 미국학계와 미국의 일반대중의 한국학에대한 인식부족과 관심결여로 ①한국이 지역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관심의 중심대상체가 되지못하는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②미국의 한국에 관계되는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시작됐다。③미국인들의 다른문화에 대한 곤질긴 地方色과 편견을 예로 들수있다고 지적했다。

와그너교수는 이밖에 한국학계의 구체적 현실문제로서 한국학이 미약한 원인은 하버드大의 경우 대학생들의 관심결여에 있는데 한국학의 등록학생80% 이상이 한국계 미국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문제에 있어서도 학교를 나와서 직장문제를 해결하지못하는데 대한 요인도 지적했다。

와그너교수는 이같은 문젯점을 고려, 한국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재정보조라고 밝혔다。재정보조는 미국내에서는 이것이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부터 나와야되는데 대학원수준의 장학금보조(하비 年間1만2천달러)、출판사업확장장려(박사논문의 출판은 편당8천달러)등을 위한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함께 고려해야 할점은 언어강습기관의 설치와 한글·영어사전의 편찬등을 들었다。

도이힐러교수(스위스취리히大)는『유럽에서의 한국학은 생명력을 결여하고있으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직장보장의 결핍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있다』고 밝히고 한국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다른 동양학과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커다란 동양학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고려돼야하며 또 문화·역사·고고인류학을 포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丁熹기자】

全南海上 교통마비

颱風영향, 5천여명 발묶여

【木浦=聯】태풍 아그네스호의 영향으로 麗水·莞島·珍島등 전남지방 항구에는31일 여객선과 어선등 각종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돼 5천여명의 승객과 선원들의 발이묶여있다。

이날 하오부터 木浦—濟州간에는 전천후 여객선인 카페리호까지 운항이 금지됐고 도서지방의 정기항로도 결항되는등 해상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때문에 각항구의 여관과 여인숙들은 발이묶인 승객들로만원을 이루고있다。

또 이날하오 전남신안군흑산면 예리항에는 동지나해에서 조업중이던 자유중국 대성호(77톤)등 30여척의 외국선박(선원 3백35명)과 1백여척의 우리선박들이 대피하고있다。

한편 제주—광주간의 여객기도 이날상오부터 이착륙이 금지되고있어 전남지방과 제주도사이에는 모든 교통이두절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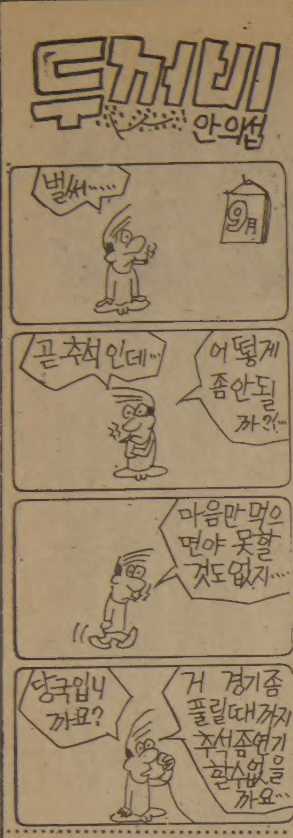
藥局、醫保 첫참여

洪川등3곳 療養機關지정 시범운영

1일부터 전국 3개2종의료보험실시 지역내에서 약국의 의료보험참여가 처음으로 시범실시된다。

보사부는 앞으로 완전한 의·약분업을 목표로 약국의 보험참여 실효성을평가하기위한 1단계 조치로 강원 洪川·전북 沃溝·경북軍威등 3개2종 의료보험실시지역의 전체약국 (20개소)을 의료보험요양 취급 기관으로 지정、1일 부터 이들약국에서 의사가발행한 처방전에따라 피보험자에게 약을조제해줄수 있도록했다。

보사부는 오는 84년까지 6개시·군을 2종보험 시범지역에 추가하고 86년이후전체 농어촌에 확대할계획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淪落女 피살

花代싸움 殺害된듯

31일 상오9시20분께 서울東大門區龍頭1洞8의19 金根煥씨(42·무직)지하실방에 세들어사는 朴蓮順씨(21·유락녀)가 목졸려 숨져있는것을 金씨부인 金末順씨(40)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朴양은 자신의 바바리코트허리대와 전축의 마이크선으로 목이졸려 숨져있었다。

표주박

달리는 列車서產苦 女兒낳아 / 승객들 "慶事났다" 誠金모아

○…31일상오 11시께 서울을떠나 金山으로가던 제45우등열차가 平澤을지날무렵 吳英順씨(30·서울冠岳區大方洞399)가 갑자기 산통을일으켜 여객전무 許日씨(42)와 승객들의 도움으로 객차안에서 여아를 순산했다。

○분만을 도운여자 승객들은 한결같이『경사가 났다』면서 즉석에서 산모돕기성금을 모금、10만9천5백원을 산모에게 전달했다。

○…또 열차가 鳥致院역에 도착하자 樹藥誠역장등 직원들은 산모 吳씨를 구급차로 읍내산부인과로 입원시키는 한편 성금2만원을거둬 산모를 격려했는데 吳씨는 충북淸原郡江外面上鳳里에 있는 친정으로 해산하러가던 길이었다。

사회 指標學 국제심포지엄

東歐·아프리카등 15國참가

오늘부터 4일간

사회指標學에관한 국제심포지엄이 1일부터 4일까지 플라자호텔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회指標學은 60년대말 미국의 레이먼드·바워박사가 창시한 학문으로 인간생활의 전반적복지생활과 사회적여건을 量的·質的으로 파악하여 앞으로 생길 사회적 문제를 지표로지적、사회정책수립을 모색하는데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의 이심포지엄에는 아시아·아프리카·아랍·유럽·南美지역에서 15개국대표 30여명、국내에서 20여명의 학자및 행정실무요원들이 참석、사회지표학의 응용에관한 토의를벌인다。

특히 東歐圈과 아프리카의 非修交國에서도 학자들이 참가할예정으로 있어 관심을끌고있다。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목표와 근대화=솔렌네만(멕시코·유엔대학) ▲근대화 과정의 지표=솔로몬·모르코스(루마니아·유엔대학) ▲경제성장과복지=金璟東(서울大교수) ▲개발계획에 있어서 사회경제지표=朱鶴中(KDI) ▲모로코의 산업화와 지표의 역할=하비브·엘·말카(모로코·라바트大)

크리팔라니氏강연

「타고르思想」주제

인도의 詩聖 타고르의 傳記作家로 유명한 크리쉬나·크리팔라니씨의 방한 초청강연이 2일 하오5시 교보강당(교보빌딩5층)에서 열린다。한국 국제문화협회와한국타고르문학회의 초청으로 내한하는 크리쉬나·크리팔라니씨는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流星의 賦 〈172〉

李炳注作 李友範畫

山空花自紅 ㉒

『사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여립을 죽여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계남이 일어서려고 하자 이영이 다시 만류했다。

『자넨 영리하긴 한데 성이 급해。내말을 끝까지 들으라구』

계남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립이 지금 죽으면 율곡에게 좋을것이 없다。되려 해독만 남겨놓고 마는꼴이 된다。그런데 지금 여립은 동인들 틈에 끼어들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있다。그러나 그자는 벼슬에서 떨어져나갈 것이 뻔하다。그후에 여립은 반드시 역모(逆謀)를 하게 된다。여립이 역모를 했을경우 만일 그가 율곡의 충실한 제자로서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그러기 지금은 그자가 역모를 꾸며도 율곡에게 누가 끼치질 않는다。그런 까닭에 그자가 역모할 날까지 살려 두어야 할거다。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형장(刑場)의 이슬이 될때까지 말이다。알았느냐』

『알았읍니다。그와 같은 심려(深慮)가 계시는 줄은 모르고 일시나마 그릇된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사이다』

하고 계남이 깊게 머리를 숙였다。

『무릇 세상 일엔 완급(緩急)이 있고 전후(前後)가 있는 것이다。요컨대 때가 있다 그말이다。정여립이 율곡을 배반한 것은 율곡을 위해 천만 다행한 일이란 것을 이제사 알았을 것이고、여립을 지금 죽여선 안된다는 사실도 이제사 알았을 것이다。그럴다면』

하고 말을 끊었다가 잠깐 숨을 돌리곤 이영이 다시 계속했다。

『너희들 팔협(八俠)들이 하려는 짓을 당장 중지해야 될것이다。율곡을 욕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어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그로써 죄를 받도록 방치하라。너희들 여덟사람들이 기를 쓰고 덤빈다고 해보았자 아무런 보람도 없이 세상만 시끄럽게 해선 결국 너희들의 전정만 망칠 뿐이니라。지금 북변(北邊)이 소란하고 해변은 왜놈들의 침노로 영일(寧日)이 없다。이럴 즈음에 젊은놈들이 그 혈기만을 믿고 견식없이 방자하게 군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못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좋지못하다。알았느냐』

『예, 알았읍니다』

『그렇다면 너의 친구들을 네가 설득할 수 있으렸다?』

『예 있사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의 허물을 내가슴속에만 간직해 두고 일을 꾸미지 않겠다。하나 불연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자넨 내가 무엇이관대 이런 말을 하는가 싶을꺼다만、나는 무관무직(無官無職)으로 있으되 내가해야할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헌데 또 말해 놓고 싶은 것은 율곡이란 사람을 자네들은 하늘같이 여기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잘못이다。스승을 스승으로서 공경하는 것은 옳지만 스승을 만능(萬能)한 사람으로 과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나도 율곡을 존경하는 데 뒤질 마음이 없으나 그의 허물도 나는 알고있다。율곡 최대의 허물은 정여립 같은 인물을 간파하지못하고 있다。앞에 나타나 평신저두(平身低頭)하면 그인물을 자기의 심복으로 믿어 버리는데 율곡의 잘못이 있다…』

모든좋이 있는生 〈189〉

趙善作 禹慶熙畫

灰色 노우트 ㉑

내가 잠에서깨어났을때 그는 침대위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불이붙은 담배에서 파르스름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고, 담배를 든 팔 사이로 조금 보이는 J씨의 옆얼굴은 백랍(白蠟)처럼 딱하게 굳어 있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도회의 잡다한 소음이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고、간밤의 쪽 설을 아랑곳하지 않는 햇빛이 네 개절용 커튼으로 가린 창위에 하나 가득 담겨져 있었다。나는 떴던 눈을 도로 감아 버리고、내가 왜 J씨의 침대에 누워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단속적(斷續的)인 영상으로 간밤의 내 모습들이 떠올랐다。어느 틈엔가 그의 침실에 들어와서 있던 나、마치 허물을 벗듯 한 가지씩 옷을 벗던 나、나체로 그의 침대에 들던 나。그런 영상들이 모두가 꿈의 진 필름처럼 하나씩 떠오르고、이어서 J씨의 영상들이 〈어제 내린 비〉에서부터 하나씩 둘씩 연결되었다。

그러나 내가 왜 그의 침대에 알몸으로 누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아침이 되면 생각나겠지、했던 무엇인가에대한 기대마저 가물가물한 느낌이었고 다만、이럴수가 없는데、이렇게 돼서는 안되는데、하는 게 무슨 꼴이람、하는 회한만이 어제밤의 영상들과 뒤섞였다。지금까지 내가 안간힘을 다해 동이키고자 해왔던 그에 대한 사랑도(아니、그것은 차라리 신앙이라는 편이 옳겠지만)、이것으로 끝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자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마 J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지 그는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깨었소?』

J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나는 누운 채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말했다。

『미스 안이었군。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 말요』

나는 J씨가 한 말의 뜻을 얼핏 깨닫지 못했다。내가 잠자코 있자 그가 다시 말했다。

『난 그게 미스 안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그런데 내게 이런식으로 알려주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거요? 깜짝 놀라게말요』

비로소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깨달았다。뿐만 아니었다。간밤에 내 머리 속을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도 함께 되살아 났다。그것은 J씨에게 정릉의 유령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의 옆에 알몸으로 누움으로써 깨우쳐주자는 생각이었었다。그렇게 해서 그의 엉뚱한 구혼을 무마하고、그의 입으로부터 나에 관한 소문이 아버지께 전해지는 불상사를 방지하자는 생각이었었다。그러나 그것은 벌써지난밤의 생각일 뿐이었다。지난 밤에는 그렇게 그럴 듯하게 보였던 생각이 아침이 되니까 빛이 바래고 공소(空疎)해져 버린 것이다。

J씨가 다시 말했다。

『미스 안이 깨어나기까지 한 시간쯤 기다렸어。그동안 난 기껏 미스 안이 이렇게 했을때 그 친구가 깨어나서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했소。그 친구가 한대로는 하고 싶지 않거든。어떻게 했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대신 정릉에서 그가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다。그러나 분명한 윤곽으로 떠오르는것은 그가 부인과 함께 서둘러 방갈로를 떠나던 장면이었다。

J씨가 다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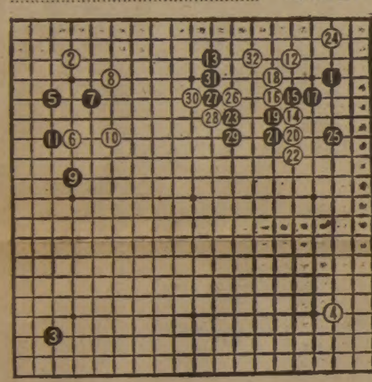
『어떻게 했지、응? 어떻게 했소?』

『도망쳤어요』

울음이 나와서 나는 울음을 한 모금 문채 대답했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2譜 1~32 (갈5시간 덤5집반)



白(5段)張 秀 英
黑(4段)鄭 壽 鉉

鄭4단은 현재 漢陽大學 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그와같은 학력의 「학사기사」는 과거에도 몇사람 있어서 한때 화제에 오르며 그런대로 상당한 활약을 보였기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길필요는 없겠지만 좌우간 바둑과 일반학업이과연 양립할수 있는지 좀염려스럽지만 鄭4단은 그걸 용하게 해내고 있다。어쨌거나 남의곱이상으로 부지런하고 특히 바둑면에서는 일찍부터 國手戰、國棋戰본선의 단골멤버로 활약하여왔으니 놀라운일이다。

黑13까지로서 상당히 大模樣이 되어갈형편에서 鄭4단은 갑자기 黑15에 붙여 張5단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이것은 이른바新手。黑13처럼 세칸을 협공했을때는 15를 25자리에 그냥 뛰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黑15를 두지않는 이유는 첫째 이하 白20때 黑21로밀어 白을 22에 맞게하는수가 黑으로서는 거북하고 둘째 黑24면 白25가 절대로 필요하며 세째 白26쪽에 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戰雲은 上邊에 감도는데

그것을 빤히알고 굳이 黑15이하를 시도한것은 「신천지」를 개척하려는 탐구심의 발로라 믿고싶지만 한편 시행착오될 염려도 없지않다。

黑25로 참고도의 黑1、3은 白6다음 白[A]와 [B]가 맞보기여서 黑이 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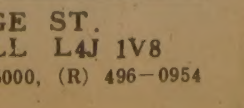
白26、28이 강수인데 黑29가 평범한호착。이하白32까지 평연이지만 여기서 戰雲이 무섭게 감돌기 시작한다。【一九】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안수및 취임 예배
초대합니다
금번 런던한인장로교회에서는 캐나다장로교 런던노회 주관으로 새 교역자 신용규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과 취임예배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같은 경사를 맞아 런던주변의 모든 교민들을 초대하오니 부디오셔서 런던교민의 역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온 한인교회의 경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1년9월12일(토) 오후3시
장소 : 530 TOPPING LANE LON.
주관 : 캐나다장로교 런던노회
런던한인교회당회원드림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金泰式 무참한 KO敗

맞붙은 強攻…2회2분46초만에

◇정확한 펀치 2회 막판에 그로기 상태의 金泰式의 안면에 챔피언 아벨라(右)가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WBC 플라이級 타이틀戰

左右스트레이트 맞고 등돌려

아벨라 威力의 펀치 작렬

비참한 KO패 기량열세가 두드러진 승부였다。프로복싱前 WBA(세계권투협회) 플라이급 챔피언이며 강타자로 인기를 끌었던 金泰式(24)은 30일밤 장충체육관서 WBC(세계권투평의회) 플라이급 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23·멕시코)에 도전, 난타전 끝에 2회2분46초만에 KO로 쓰러져 王座 재정복에실패했다. 초반 승부를 노린 金은 게임이시작되자마자 아벨라와 熱氣의 강펀치를 주고받으며 정면타격전을 벌였으나 2회초반 예리한 左右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맞은후 결정적인 열세에 빠져, 계속 강펀치를 허용, 무참히 쓰러졌다. 아벨라의 유효타에 金의 고개는 좌우로 크게 돌아갔고, 전의를 상실한 金이 경기를 포기한듯 등을 돌리고 물러서자, 아벨라가 쫓아가 레프트 훅으로 가격, 승부를 결정했다.

金은 혼미한 상태에서 기습펀치를 맞고 중립로프밖으로 허리를 걸치고 쓰러져 KO, 3분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며 경기후 세브란스병원에 옮겨져 의사의 검진을 받았다.

지난5월 日本의 오오쿠마(大熊正二)를 7회에 KO시키고 챔피언이 되었던 아벨라는 펀치력과 기량에서 한수 위였다。관중들의 과열분위기에 흔들림이없이 냉정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고 정확한 펀치로 반격, 초반KO승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아벨라는 이날의 승리로 29승(24KO) 5패1무를 기록했으며 金은 15승(12KO) 3패가 됐다.

세계 女子蹴聯창설 AFC서 중단促求

【쿠알라룸푸르30日AFP=聯合】아시아축구연맹(AFC)의 부·사마회장은 30일 여자축구를 관장하고있는 모든 AFC산하단체에 세계 여자축구연맹 창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마회장은 이날 AFC집행위원회 회의를주재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세계 여자축구연맹창설을『불건전한 사태발전』으로 간주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청에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마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10월 여자축구연맹을 결성하려는 홍콩부녀협회의 계획을 몇몇 국가에서 지지하고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日팀 韓國實業선발 大破

친선야구 7次戰서 10대4

日本 오오사까(大阪)사회인선발 야구팀초청 韓日친선야구대회최종 7차전서 日本실업선발은 韓國실업선발을10대4로 대파, 訪韓전적 4승3패를 기록했다.(30일·서울運)

日本實業선발은 국가대표선수들이 즐비한 韓國실업선발을 맞아 일진일퇴, 7회까지 4대4로 접전을벌이다 8회초1사후 韓國선발 崔東原을 난타하기 시작, 3번사또, 4번 후지무라의 연속안타에 이은 5번시마다의 우중간주자일소 2루타로 2점을빼내고 이어 6번대타후지다가 대세를 결정짓는 2점홈런을터뜨려 8대4로 리드했다. 日本실업선발은 9회초에도 3번 사또의 2점 홈런으로 2점을 추가 10대4로 대승했다.

韓國실업선발은 1회와 2회말 1번 李海昌과 5번張孝祚가 각각 솔로홈런을 날려 2대1로 앞섰으나 3회초에 한점을뺏겨 2대2 동점이됐고 5회와 7회 金在博의 좌전적시타와 禹京的의 솔로홈런으로 1점씩을 뽑았으나 6회와 7회초 각각 1점씩을 허용, 4대4로 동점을 이루었었다.

全日本선수권戰서 檀大조정팀우승

【東京=聯合】30일 日本사이따마(埼玉縣)도다(戶田)에서 열린 제21회 옥스포드컵쟁탈 全日本조정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檀國大팀은 6분16초57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이대회에는 31개팀이 출전했다.

◇전적=①한국檀國大6분16초57②日本慶應大6분18초③同志社大6분20초45

「일요일 暴雨」곳곳에 水災

—中南部할퀸 水害의 현장

◇漆黑의밤 "꽝" 民家全破 칠흑의 밤을 할퀸 충북 沃川邑 三靑里산사태현장。부서진 벽시계가 참사의 순간을 가리킨채 멈춰있다。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집 2채를 덮치는 바람에 일가족등 4명이 압사했다。【三靑里현장=韓隆기자찍음】

세곳 山沙汰로 9명숨져

최고3百mm 蛇嶺山와르르 沃川

흙더미 民家덮쳐16명死傷 陜川

29일하오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30일 자정을 전후해서 일부지방에서 2백mm이상의 집중호우로 변해 중남부지방 곳곳에서 산사태, 축대붕괴, 암반추락, 하천범람, 낙뢰, 도로두절등 크고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전국에서 가장많은 3백17mm(추정)의 폭우가 내린 沃川郡 沃川邑을 비롯한, 陜川郡外谷里, 大邱東區 그린호텔뒷산등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9명이 숨졌고 洛東江상류에서는 뱃사공이 배와 함께급류에 떠내려가는등 전국에서 7건의 수해로인한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사고지역의 도당국및 군경구조반은 우선 인명구조에 나서는 한편 동원령을 내리고 불도저 크레인등 중장비를 동원, 피해복구를 서두르고있다.

【沃川=方皎俊기자】30일새벽1시10분께 충북沃川郡沃川邑三靑里 下三부락 뒷산인 속칭蛇嶺山(해발1백20m) 중턱이 집중호우로 무너져내리면서 쏟아진 토사가60m떨어진 이마을 李甲眞씨(77)와 郭楨虎씨(49) 집을 차례로덮쳐李씨와李씨의차녀龍煥양(20) 차남春成군(17·沃川공고2년) 郭씨의3남光燮군(10·郡南국교4년) 등4명이 압사하고 郭씨와 부인 李元燮여인(46)이 중상을 입었다.

沃川郡일대는 29일하오 6시부터 비가내리기시작,30일 자정을 전후해서 집중호우로 변해 1시간에 50여mm정도씩 쏟아졌다.

산사태가난 蛇嶺山 기슭에는 평소 폭 10m가량의 작은 골짜기가 파여있었는데 이날 집중호우로 골짜기물이 넘치는바람에 양쪽기슭이 허물어지면서 무너진토사가 경사15도의 산비탈을 미끄러져 마을을 덮친것.

참변을당한李씨집바로아래에 사는 이장 郭楨燮씨(32)에 의하면 이날 밤12시께 유선방송을 통해『비가 많이오니 잠을 자지말고 대비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린뒤 1시간쯤뒤『꽝』하는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집앞으로 들이닥쳤다는것.

이장 郭씨는 산사태가났음을 직감, 플래시를 들고나와 주위를비춰보니 李씨집과 郭씨집이 온데간데없이 토사에 휩쓸렸다고 말했다.

◇숨진李甲眞씨 ◇숨진李用安양 ◇숨진春成군

郭씨등은 주민들을불러 집아래 깔린채『사람살려라』고 비명을지르던 郭씨부부를 1시간만에 구조하고 나머지숨진 4사람의 시체는 31일 하오6시께 모두 발굴했다.

이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郭씨부부는『잠을자다가 천지가 뒤집히는듯한소리가나 놀라깨는순간 집이 무너져내리며 진흙이 밀려들어 덮쳤다』고 말했다.

산사태가난 下三里부락의 다른주민 1백60명은 산사태가 무너지는소리에 놀라밖으로뛰쳐나와 인근뚝두렁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한편 사고당시 李씨의 부인 朴福禎씨(64)는 약초행상을위해 서울로올라가 참변을면했고 郭씨의 2남 根燮군(16·沃川高1년)은 인근친구집에 놀러갔다가 폭우때문에 귀가하지못해 화를면했다.

下山부락은 善山 郭씨 50여세대가 모여살고있는데 숨진 李씨는 郭씨집안 선산을 20년간 돌보아왔다.

▲30일 하오5시20분께 경남陜川郡外谷里 신평부락 뒷산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을 덮쳐 이마을 趙成達씨(49) 집등 11채가 전파되고 趙씨의 부인 尹正子여인(44)등 4명이 숨졌으며 趙용운군(12·자산국교5년)등 12명이 중경상을입었다.

이 산사태는 이날 하오3시께부터 2시간동안 2백70mm가량의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해발4백m 고지대에 있는 이마을의 뒷산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민가를 덮쳐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산밑에 자리잡고있던 20여채의 가옥가운데 11채가 흙더미속에 모두 파묻혔다.

한편 구조작업에 나선 陜川郡재해대책본부는 현장에서 숨진 尹여인등 2명의 시체를 찾아내고 흙더미속에파묻힌 나머지 2명의 시체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大邱 그린호텔 뒷산 바윗덩이호텔덮쳐 대낮 投宿客 즉사

▲30일하오2시께 大邱東區 그린호텔뒷산이 폭우에 무너져 내리면서 3톤가량의 바위덩이가 이 호텔109호실을 덮쳐 대낮에 투숙중이던 許在九씨(27·南區梨泉洞2구505)가 현장에서 숨지고 朴恩淑양(21·西區內唐洞5구807)이 중상을 입었다.

▲충북堤川·丹陽지방에 지난29일부터 30일상오8시까지 82~8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물이 범람, 堤原里淸風 黃石里 南漢江상류 황석나면 무터등 7개나루터 차도선과 16개소의 인도선등이 30일하오2시부터 발이 묶였다.

이때문에 堤川―淸風―寒水―德山간 시외버스와 堤川―丹陽군永春간, 丹陽―魚上川간 시외버스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堤川교육청은 차도선과 인도선을 이용, 통학하는 4백여명의 각급학교 학생들은 도선이 운항할때까지 같은반 학생들집에서지내며 학교에 다니도록했다.

▲30일 상오11시께 江原道 三陟郡 遠德邑湖山里에서 太白서쪽으로 15m떨어진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차량통행이 끊겼다.

이 산사태는 30일 자정께부터 이곳에 내린 60mm의 집중호우로 일어났는데 31일하오 늦게라야 복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地方綜合=聯合】

◇물에 잠긴 豊年들판 전북完州郡助村面 新亭부락앞 1천8백여평의 벼논이 집중호우로 물에잠겨 수확을 20여일앞둔 벼가 마구 쓰러져있다。【完州=聯合】

軍兵力·장비 투입 水害복구사업 支援

국방부는 31일 중남부지방의 수해복구를 위해 각군과 예비군은 작전에 지장이없는 장비와 인원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육군은 이날 경북慶山과 충북沃川등 7개지역에 2천7백명의 병력과각종장비를 동원, 유실 도로등 수해복구작업을 벌이고있다.

한편 육군은 지난30일 하천범람으로 고립되었던 경북慶山郡 孤山面주민 60여명을 비롯하여 98명을 헬리콥터로 구출하기도 했다.

日, 馬聯격파 첫 勝利거둬

메르데카盃 蹴球선수권戰

【쿠알라룸푸르30日聯合=聯合】日本은 30일 개막된 메르데카배쟁탈 축구대회에서 홈팀말레이지아를 2―0으로 물리치고 첫승리를 거두었다.

日本은 이날 4만여관중이 말레이지아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벌어진 경기에서 전반7분 FW요꼬야마가 선취점을 올린데 이어 전반30분 또다시 요꼬야마가 코너킥된 볼을 헤딩으로 슛 추가점을 올렸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네동생이 왜 울고있니, 엘모야?" "아이스크림 콘이 녹아 떨어지니까요"

"그래, 동생은 지금 어린애잖니…네가 동생에게 아이스크림 먹는법을 가르쳐줘야지"

"자봐라…이렇게 가장자리를 핥는거야…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먹는법을 가르쳐주느라 아이스크림을 다먹어 버렸더니 울어요"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원덕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침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식품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거구장
—특별메뉴—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광한약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 439-6717 김남집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